



국민 삶의 질 2017



Korean quality of life indicators 2017



통계청
통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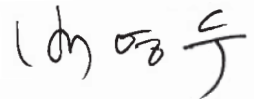
발간사

사회발전 척도로서 GDP와 같은 경제지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직접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21C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1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홈페이지(qol.kostat.go.kr)를 통해 삶의 질 지표의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온라인 서비스한 이후 처음으로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측정결과를 영역 및 개별 지표별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12개 영역의 80개 지표에 대한 측정결과와 최근 추세, 시계열 비교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통계수치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한 설명 및 그래프를 포함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압축하여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착수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를 계기로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되어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복수의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범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개발원장





개요

측정 결과

01 작성배경 · 8

02 목적 · 9

03 '삶의 질'이란? · 9

04 프레임워크 · 10

05 지표선정 기준 · 11

06 지표체계 · 12

07 지표관리절차 · 14

08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15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16

01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 25

균등화 중위소득 · 26

균등화 중위소비 · 27

가구평균 순자산 · 28

지니계수 · 29

상대적 빈곤율 · 30

소득만족도 · 31

소비생활 만족도 · 32

02 고용 · 임금

고용률 · 35

실업률 · 36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37

근로시간 · 38

저임금 근로자 비율 · 39

일자리 만족도 · 40

03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 4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44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45

04 주거

1인당 주거면적 · 4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50

통근/통학 소요시간 · 51

주거비용 · 52

주거환경 만족도 · 53

05 건강

기대수명 · 57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58

고혈압 유병률 · 59

당뇨 유병률 · 60

주관적 건강평가 · 61

스트레스 인식정도 · 62

규칙적운동 실천율 · 63

비만율 · 64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65





06 교육

유아교육 취학률 · 69
고등교육 이수율 · 70
평생교육 참여율 · 71
학업중단율 · 72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73
대졸생 취업률 · 74
PISA 백분위 순위 · 75
학교교육의 효과 · 76
학교생활 만족도 · 77

07 문화·여가

평균 여가시간 · 81
여가활동 만족도 · 82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 83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8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85
문화여가 지출비율 · 86

08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만족도 · 89
한부모 가구 비율 · 90
독거노인 비율 · 91
자살률 · 92
사회적 관계망 · 93
사회단체 참여율 · 94
지역사회 소속감 · 95

09 시민참여

투표율 · 99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100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101
시민의식 · 102
부패인식지수 · 103
대인신뢰 · 104
기관신뢰 · 105

10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10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10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11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11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113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 114
산업재해율 · 115
화재발생건수 · 116
도로사망률 · 117

11 환경

미세먼지 농도 · 12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122
기후변화 불안도 · 123
체감환경 만족도 · 124
에너지 빈곤층 비율 · 125
하수도 보급률 · 126
폐기물 재활용 비율 · 127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128

12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 131
긍정정서 · 132
부정정서 · 133



개요

01 작성배경

02 목적

03 '삶의 질'이란?

04 프레임워크

05 지표선정 기준

06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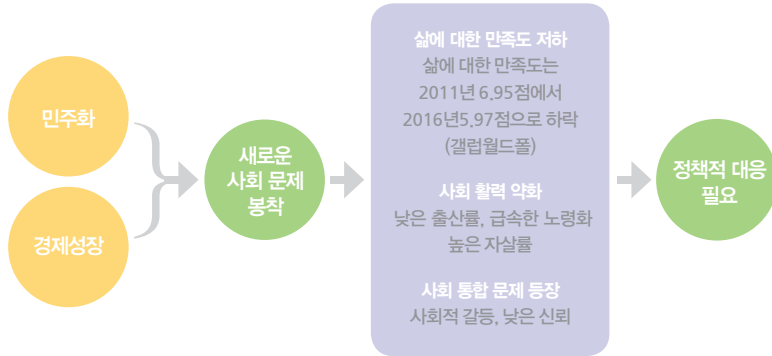
07 지표관리절차

08 최근 추세 판정 기준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관심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중심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성취 및 사회 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OECD는 200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과로 “How’s Life?”를 2011년에 발간하여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에 대한 논의를 2009년에 출발하여 EU 2020년 정책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 단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02

목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연혁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체계 개발 •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 • 9개 영역, 84개 지표
2012~2013년	미생산 신규지표 개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를 지표변경 • 12개 영역, 83개 지표(삭제 9개, 신규 8개, 변경 6개) • 기존의 소득소비 영역을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로 분류
2014년	홈페이지 구축(qol.kostat.go.kr) 및 서비스 실시 내외부 전문가의 지표체계 검토 •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2개, 변경 13개)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2015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환경영역 중분류 변경) •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1개, 신규 1개, 변경 7개)
2016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 • 12개 영역, 80개 지표(삭제 1개, 변경 3개)

03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측정내용에 따라 삶의 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개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개 영역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되며,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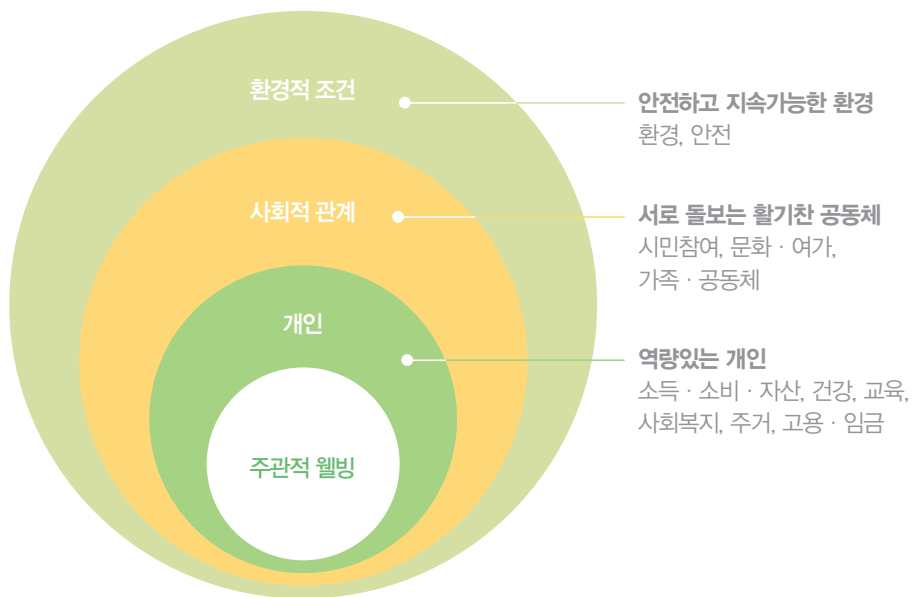
‘역량있는 개인’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차원의 목표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적 조건 차원의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는 크게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지표 선정 기준

자료의 질

- 공식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 시계열 확보: 동일척도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적절성(relevance)

-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 이해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중립성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06

지표 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2017년 9월 기준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56개, 주관적 지표는 24개이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방향 지표(+)와 부정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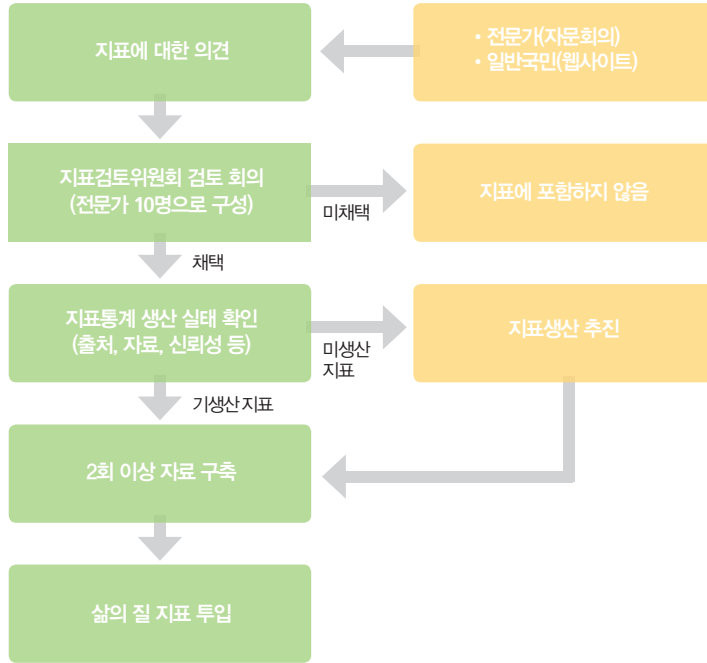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56)	주관적 지표(24)
소득·소비·자산	-	+ 1인당 GNI + 균등화 중위소득 + 균등화 중위소비 + 가구평균 순자산 - 지니계수 - 상대적 빈곤율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	+ 고용률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실업률 - 근로시간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일자리 만족도
사회복지	-	+ 공적연금 가입률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주거	-	+ 1인당 주거면적 - 통근/통학 소요시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주거비용	+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고혈압 유병률 - 당뇨 유병률	+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비만을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 유아교육 취학률 + 고등교육 이수율 + 평생교육 참여율 - 학업중단율	-
	교육자원	-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교육성과	- PISA백분위 순위 + 대졸생 취업률	+ 학교교육의 효과 + 학교생활 만족도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56)	주관적 지표(24)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 평균여가시간	⊕ 여가활용 만족도 ⊖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문화여가 지출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	⊕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 한부모가구 비율 ⊖ 독거노인 비율	—
	사회적 관계	⊖ 자살률 ⊕ 사회적 관계망	—
	공동체 참여	⊕ 사회단체 참여율	⊕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 참여	정치참여	⊕ 투표율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적 의무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시민의식
	시민적 권리	—	⊕ 부패인식지수
	신뢰	—	⊕ 대인신뢰 ⊕ 기관신뢰
안전	범죄	⊖ 강력범죄 발생률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산업재해율 ⊖ 화재발생건수 ⊖ 도로 사망률	—
환경	환경의 질	⊖ 미세먼지농도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기후변화 불안도 ⊕ 체감환경 만족도
	환경서비스/ 자원관리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주관적 웰빙	—	—	⊕ 삶에 대한 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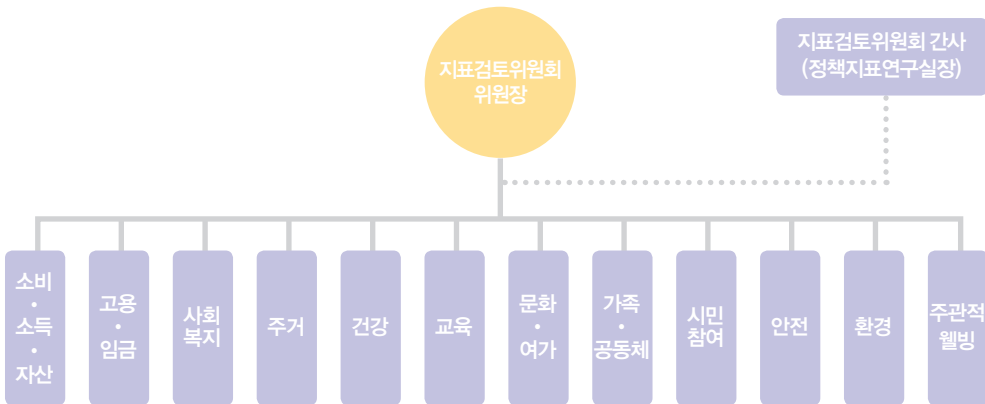
- ⊕ 또는 ⊖ 는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는 긍정방향 지표, ⊖ 는 부정방향 지표)
- 2017년 9월 기준임.

개별 지표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물이 아닌 사회변화에 따라 지표 구축현황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12개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표 관리 절차



지표검토위원회



- 지표검토위원 (영역별 1명)
- 자문위원 (영역별 5명)

80개의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최근 자료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여주하고자 한다.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기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서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측정값이 전년대비 증가이면 ‘개선’으로 판정된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의 증가가 삶의 질의 개선이 아니므로, 측정값이 전년대비 증가하면 ‘악화’로 표시된다. 즉 지표의 측정값이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로 판정된다.

추세표시



개선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동일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악화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 1년주기 자료의 경우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2년 주기 이상인 경우는 최근 측정값 이전의 자료와 비교

지표업데이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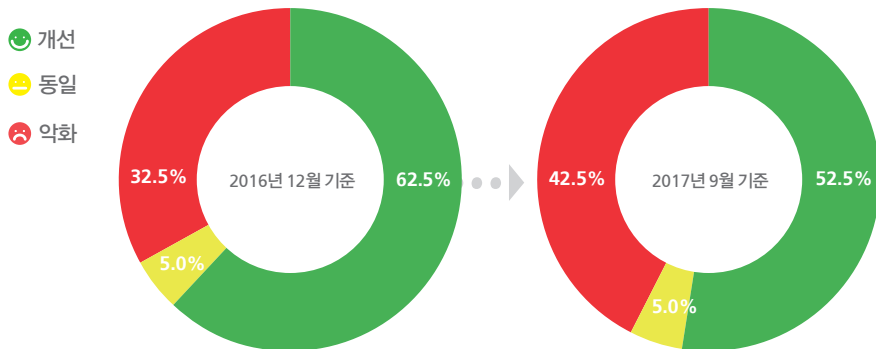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여러 개의 출처에서 생산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다. 이에 홈페이지에서는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 하여 해당시점에 업데이트된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9월 업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작성연도별 지표: 2017년 1개, 2016년 43개, 2015년 29개, 2014년 7개 (2017년 9월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전체 12개 영역에 80개 지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표별 최초 생산년도와 생산주기(연간 51개, 2년 24개, 3~5년 5개), 최근 생산년도의 차이로 인해 전체 기간에 걸친 동향(trends) 분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와의 변화 추세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전체 80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42개(52.5%), 악화된 지표 34개(42.5%), 전기와 동일한 지표 4개로 나타나 개선된 지표의 비율이 약간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해보면, 80개 지표 중 39개 지표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전체 80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50개(62.5%), 악화 지표 26개(32.5%), 전기와 동일한 지표 4개로 나타나 개선 지표의 비율이 2016년 12월 기준 대비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 최근 추세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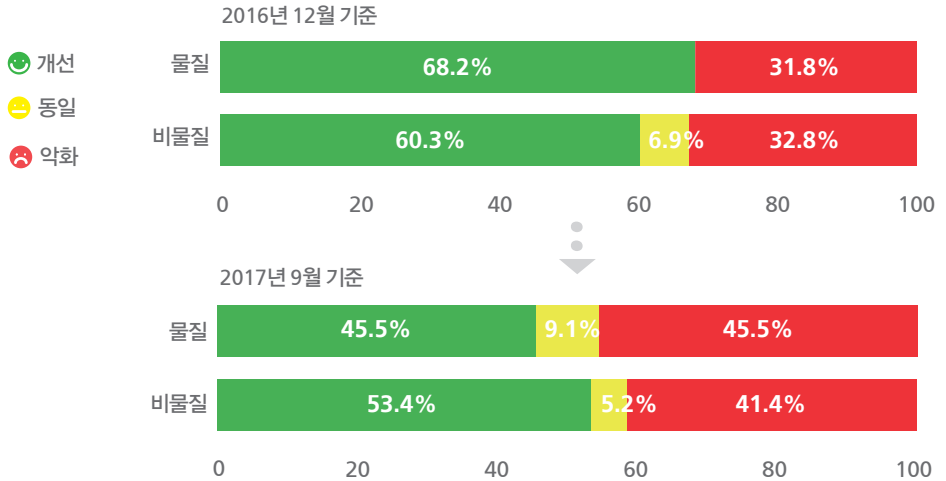


12개 영역은 크게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물질부문은 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 영역이고 비물질 부문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영역이다.

물질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비교해보면, 물질부문에서는 개선지표와 악화지표가 45.5%로 동일한데 비해 비물질 부문은 개선지표가 53.4%, 악화지표가 41.4%로 비물질 부문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2016년 12월 기준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 12월에는 물질부문의 개선지표는 68.2%, 비물질 부문의 개선지표는 60.3%로 물질부문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6년 12월 이후 악

화된 지표들이 비물질 부문보다는 물질부문에 많이 포함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12월 이후 업데이트 된 지표(39개) 중 물질부분 지표는 16개로 물질 부분의 지표(22개)의 72.7%가 업데이트되어 물질부분에 최근 추세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물질과 비물질 부분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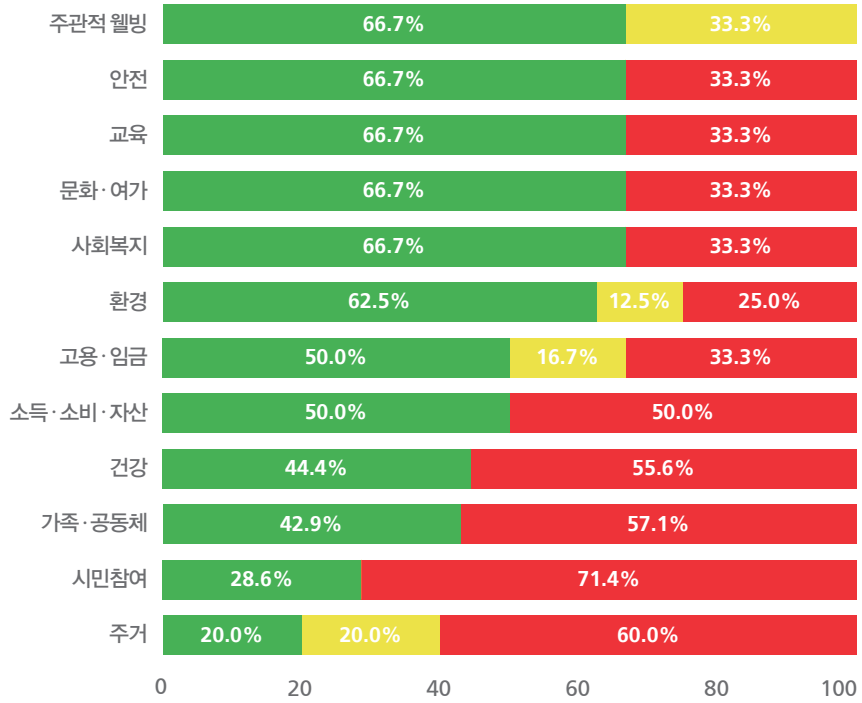


영역별로 지표의 최근 추세를 보면 사회복지, 교육, 문화·여가, 안전,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선지표 비율이 6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와 시민참여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와 시민참여 영역은 악화지표의 비율도 또한 각각 60.0%, 7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족·공동체(57.1%), 건강(55.6%), 소득·소비·자산(50.0%)에서 악화지표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12월 기준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일부 영역(건강, 가족·공동체, 시민참여)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지표 비율이 낮은 세 영역 또한 개선지표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악화지표의 비율이 50% 이상인 영역은 건강 영역 하나에 불과하다. 즉 2016년 12월 기준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건강, 문화·여가, 안전, 환경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다 악화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소득·소비·자산, 주거, 시민참여 영역이 2016년 12월 보다 많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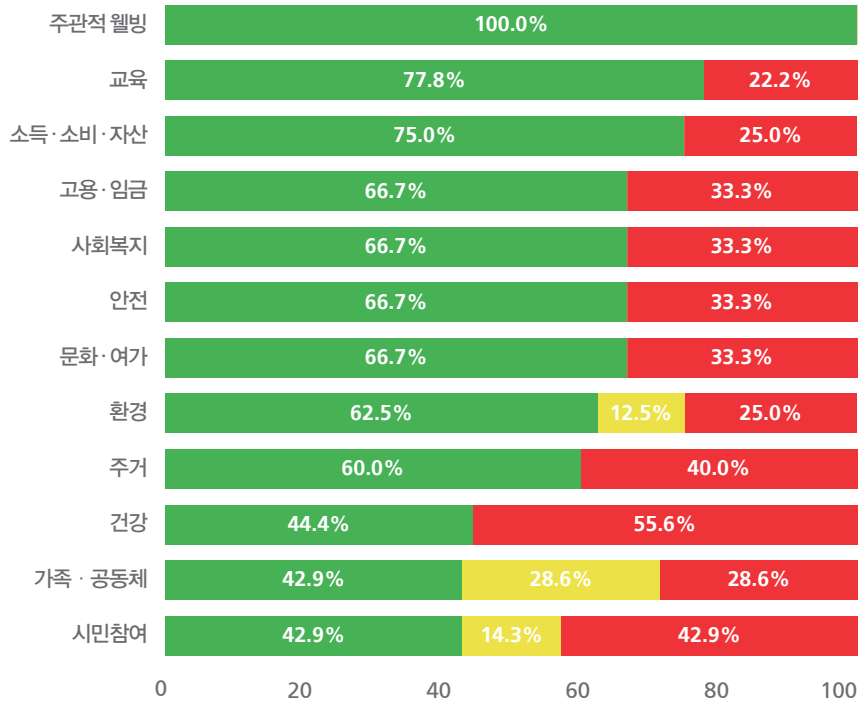
● 영역별 추세

2017년 9월 기준

- 😊 개선
- 😐 보합
- 😞 악화



2016년 12월 기준



● 전체지표 최근 추세(2017년 9월 기준)

구분	영역명	지표명	최근증감	영역명	지표명	최근증감
물질적 영역	소득 소비 자산	1인당 GNI	😊	고용 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
		소비생활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사회 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주거비용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주거환경 만족도	😊
비물질적 영역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고등교육 이수율	😊
		고혈압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당뇨 유병률	😊		학업 중단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스트레스 인식정도	😊		대졸생 취업률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PISA 백분위 순위	😞
		비만율	😞		학교교육의 효과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생활 만족도	😊
	문화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가족 공동체	가족관계 만족도	😊
		여가활동 만족도	😞		한부모 가구 비율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독거노인 비율	😞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자살률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사회적 관계망	😊
		문화여가 지출비율	😊		사회단체 참여율	😞
	시민 참여	투표율	😊	안전	지역사회 소속감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강력범죄 발생률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시민의식	😊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부패인식지수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대인신뢰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환경	기관신뢰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미세먼지 농도	😞	주관적 웰빙	산업재해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화재 발생 건수	😞
		기후변화 불안도	😞		도로 사망률	😊
		체감환경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긍정정서	😊
		하수도 보급률	😊		부정정서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개별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지표는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qol.kosta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01 소득·소비·자산

02 고용·임금

03 사회복지

04 주거

05 건강

06 교육

07 문화·여가

08 가족 공동체

09 시민참여

10 안전

11 환경

12 주관적 웰빙



01

소득·소비·자산

Income / Consumption / Wealth



소득·소비·자산이란?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물질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라는 과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에 대한 핵심지표로서 소비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축적의 원천이 된다.

소득분배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추세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4개, 악화인 지표는 4개로 나타났다. 1인당 GNI와 중위소득은 약간 개선되었지만, 주관적인 소득만족도는 악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1인당 GNI
- 😊 균등화 중위소득
- 😞 균등화 중위소비
- 😊 가구평균 순자산
- 😞 지니계수
- 😞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지표

- 😞 소득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1인당 GNI



GNI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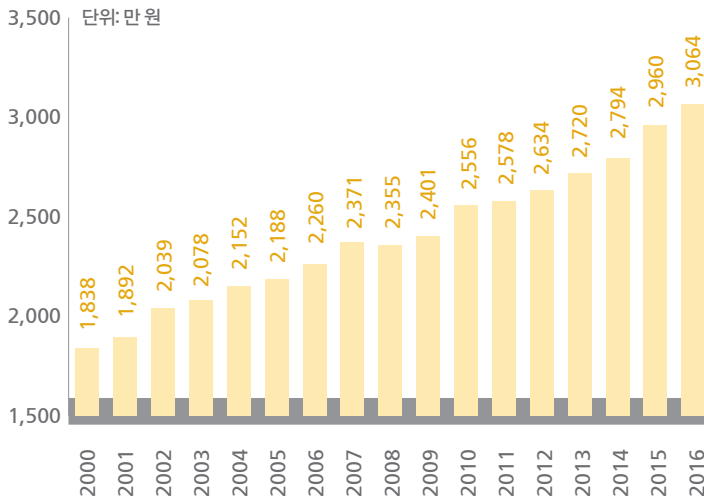
정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임.

측정방법 1인당 GNI = 실질 GNI(2010년 기준) ÷ 추계인구

-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질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16년 1인당 GNI는 3,064만원으로 2015년(2,960만원)에 비해 약 104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 2000년 이후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보이는 데 2002년에는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0.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064만원,
전년대비 3.5% 증가

2000~2016년 1인당 GNI



-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GNI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며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

significance

균등화 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정의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소득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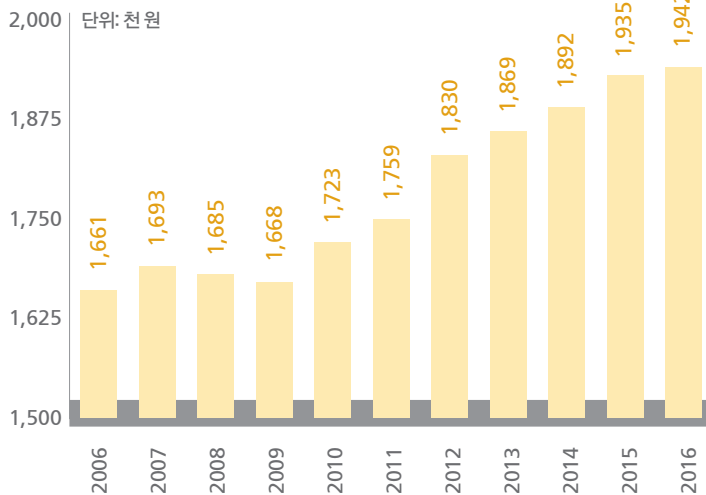
측정방법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

**2016년
194만 2천원,
전년대비
0.3% 증가**

- 균등화 중위소득(실질금액)은 2016년 194만 2천원으로 2015년의 193만 5천원보다 0.3% 증가했다.
- 2006년 이후의 증가율을 보면 실질소득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전년대비 0.4%, 1.0% 감소하였다.
- 2009년 이후로는 매년 전년대비 1% 이상 증가율을 보여, 최소 2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비해 2016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0.3%에 그치고 있다.

2006~2016년 균등화 중위소득



words

균등화 처리방법 가구의 전체소득을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전체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significance

•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 1인 이상 전국가구(농가포함)
-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하여 실질화(2015년 기준)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균등화 중위소비



Equivalised median consumption

정의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소비지출 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비지출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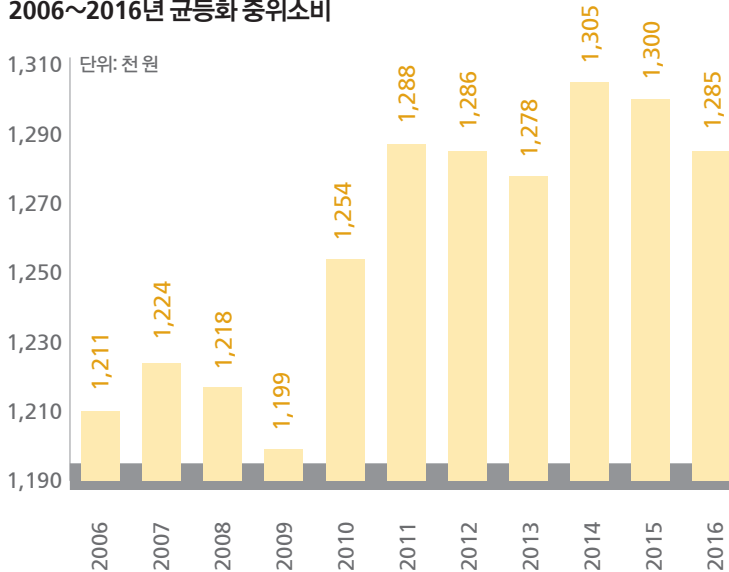
측정방법 소비지출을 가구원수로 균등화(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 가계지출에는 자산구입지출과 같은 항목은 제외
-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사회보험료, 지불이자, 기부금, 가구간이전지출 등을 의미

- 균등화 중위소비(실질금액)는 2016년 128만 5천원으로 2015년의 130만원에 비해 1만 5천원 정도 감소하였다.
- 2006년 이후 균등화 중위소득이 2008~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던 것과는 달리 균등화 중위소비는 2006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 2016년에는 전년대비 1.17% 감소하여 2009년(-1.5%)을 제외하면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28만 5천원,
전년대비
1.17% 감소

2006~2016년 균등화 중위소비



- 1인이상 전국가구(농가포함)
-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하여 실질화(2015년 기준)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균등화 처리방법 가구의 전체 소비를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전체 소비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significance 우리나라 개인 소비지출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며,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도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가구평균 순자산



Average net household w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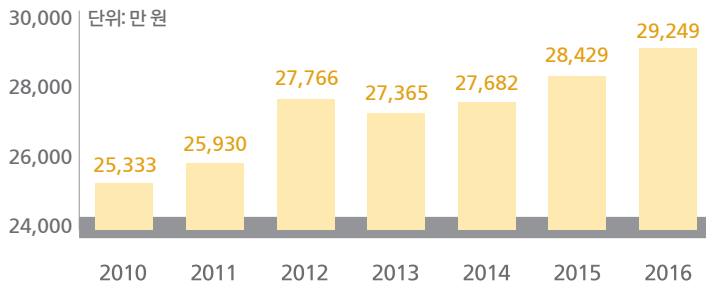
정의 가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금액의 평균

측정방법 가구평균 순자산 = 가구의 평균자산 - 가구의 평균부채

2016년
2억 9,249만 원,
전년대비
2.89% 증가

- 2016년 가구의 평균 순자산(실질금액)은 2억 9,249만원으로 2015년 2억 8,429만원에 비해 820만원 증가하였다.
-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 50대의 경우 순자산, 자산, 부채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0세 이상은 자산은 4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부채금액이 적어 순자산은 40대보다 많다.

2010~2016년 가구평균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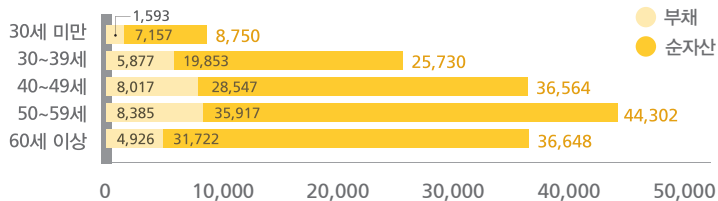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2015년 기준). 2016년 값은 잠정치임.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significance

● 가구의 재산 증감과 각 자산 및 부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태가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음

2016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명목금액, 잠정치)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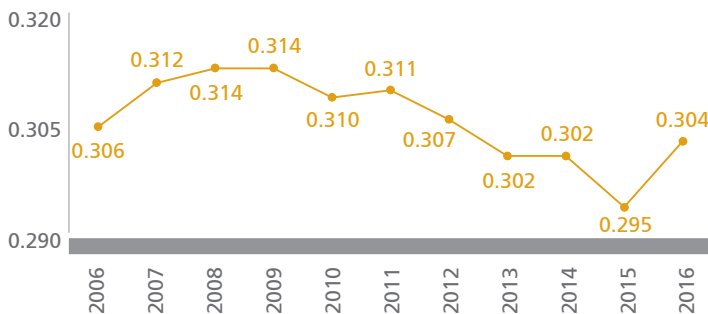
Gini coefficient

정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
측정방법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

-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6년 0.304로 지난해보다 3.1%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2006년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0.314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0.295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스웨덴이나 독일보다는 높으나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6년 0.304
전년대비
3.1% 증가

2006~2016년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임.
-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대상임.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로렌츠곡선 XY평면의 X축에 사람들을 소득순위로 줄을 세우고 Y축에 이들의 균등화누적소득을 표시했을 때 X와 Y가 서로 만나는 점들을 연결하여 그린 곡선

완전균등선 XY 평면의 원점에서 45도 대각선으로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를 의미

2013년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

스웨덴	독일	한국	캐나다	일본	미국
0.281	0.292	0.302	0.322	0.330	0.396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임. 일본은 2012년 자료임.
- 출처: OECD,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니계수 시계열을 통해 국가의 소득분배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비교도 가능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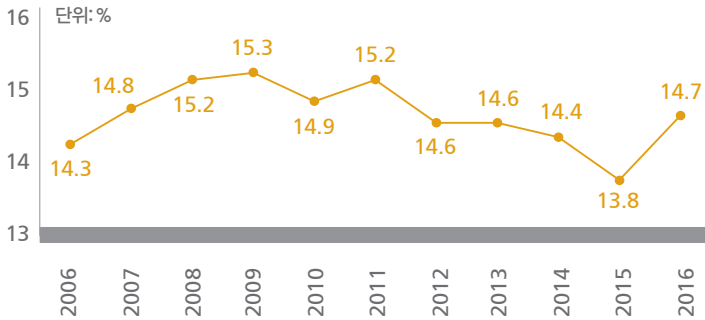
Relative poverty rate

정의 전체인구를 개인별 균등화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 ÷ 전체 인구) × 100

**2016년 14.7%,
 전년대비
 0.9%p 증가**

- 2016년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4.7%로 2015년 13.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 2006년 이후 2009년에 15.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5년 13.8%까지 감소하였다.
- 남자는 12.3%, 여자는 16.8%로 여자가 남자보다 4.5%p 높고,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6.5%로 전체 평균보다 3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6년 상대적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기준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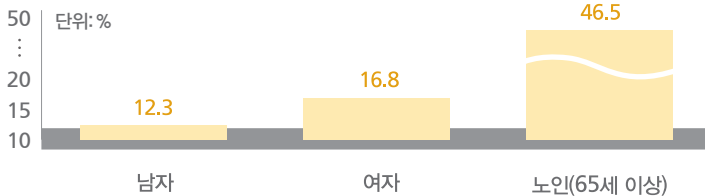
words

균등화 처리방법 가구의 전체소득을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전체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significance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2016년 성별 및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기준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소득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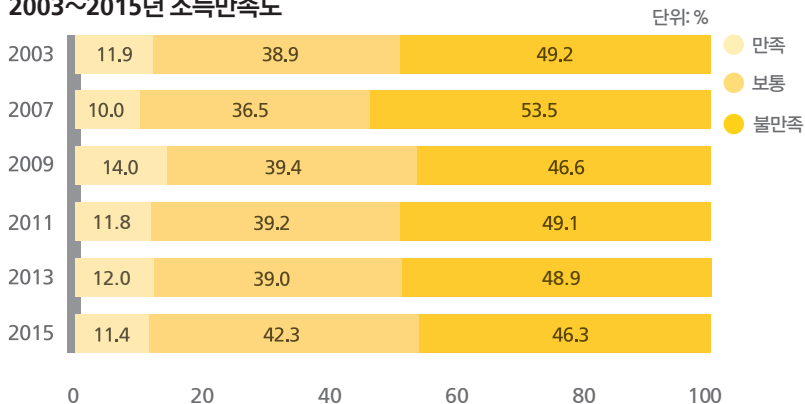
정의 개인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소득만족도는 2015년 11.4%로 2013년 12.0% 보다 0.6%p 감소하였다. 소득만족도는 2007년 10.0%에서 2009년 14.0%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40대가 13.7%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의 소득만족도는 8.1%로 매우 낮다.
- 40대의 소득만족도는 2003년 11.4%에서 2015년 13.7%로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0.4%에서 8.1%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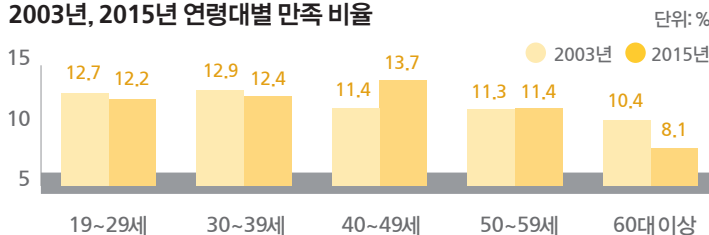
**2015년 11.4%,
2013년보다
0.6%p 감소**

2003~2015년 소득만족도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은 '만족',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표시함.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03년, 2015년 연령대별 만족 비율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significance

소비생활 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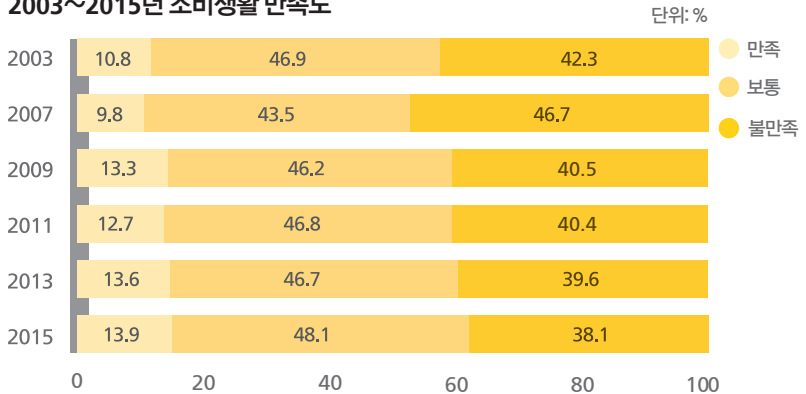
정의 개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소비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5년 13.9%,
2013년보다
0.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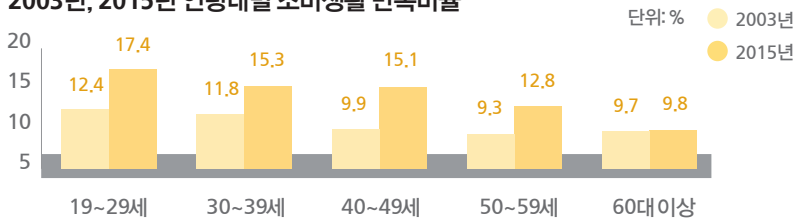
- 소비생활 만족도는 2015년 13.9%로 2013년 13.6%보다 0.3%p 증가하였다. 2007년 9.8%에서 2009년 13.3%로 크게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19~29세의 만족도는 17.4%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9.8%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의 연령대별 소비생활만족도와 비교하면 연령대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2003~2015년 소비생활 만족도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은 '만족',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표시함.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2003년, 2015년 연령대별 소비생활 만족비율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significance

•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임

02

고용·임금

Employment / Wage



고용 · 임금이란?

경제활동의 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 정당한 보수 수급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 등이 궁극적으로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고용의 질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추세

고용 · 임금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2개, 전기와 동일한 지표는 1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50%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이 개선되었지만, 실업률은 악화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고용률
- 😞 실업률
-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 근로시간
- 😬 저임금근로자비율

주관적 지표

- 😞 일자리 만족도

Employmen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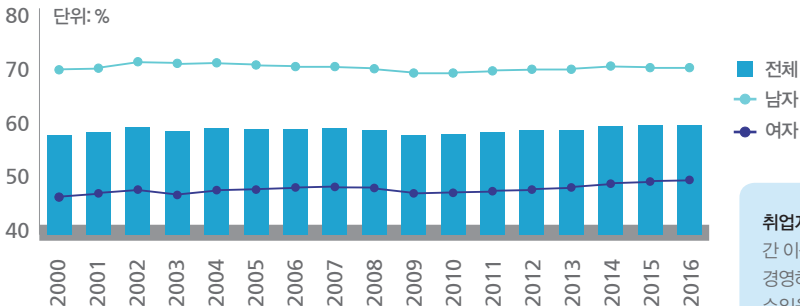
정의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측정방법 $\text{고용률} = (\text{취업자} \div \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2016년 고용률은 60.4%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09년 58.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남자는 71.1%로 여자(50.2%)보다 20.9%p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차이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프랑스 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 보다는 낮다.

**2016년 60.4%,
전년대비
0.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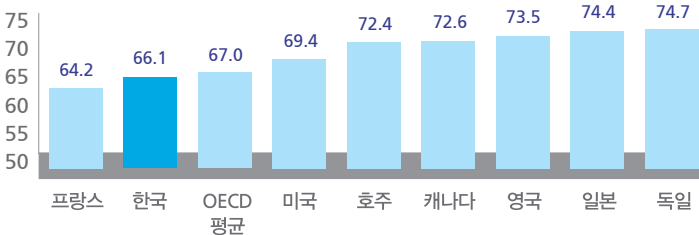
2000~2016년 고용률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2016년 주요 국가별 고용률



• $\text{고용률} = (\text{15~64세 취업자수} \div \text{15~64세 인구}) \times 100$

• 출처: OECD, 《Labor Force Statistics》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주로 사용됨

Unemployment rate

정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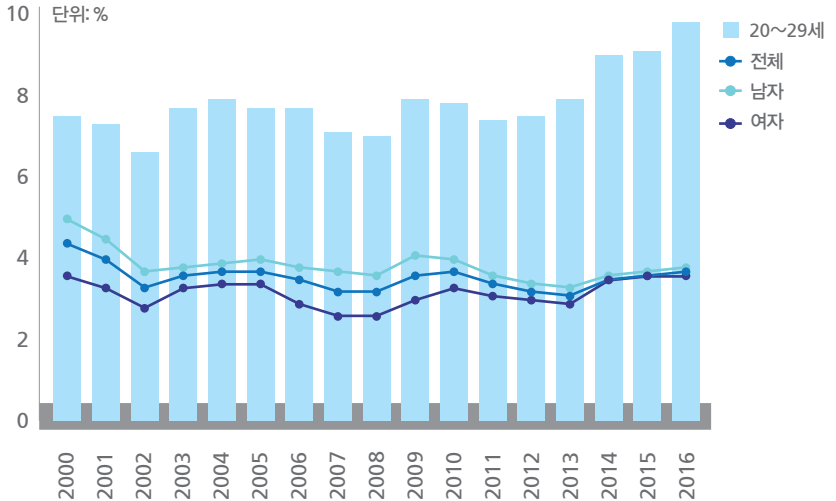
측정방법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유의사항 실업률은 조사대상주간(지난 4주 기준)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되므로 일할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됨

**2016년 3.7%,
전년대비
0.1%p 증가**

- 2016년 실업률은 3.7%로 2015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 2000년 4.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3.1%에서 증가추세에 있다.
- 2016년 남자 3.8%, 여자 3.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은 2016년 9.8%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2011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보다 증가폭도 크게 나타난다.

2000~2016년 실업률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words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significance

●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Average earned income of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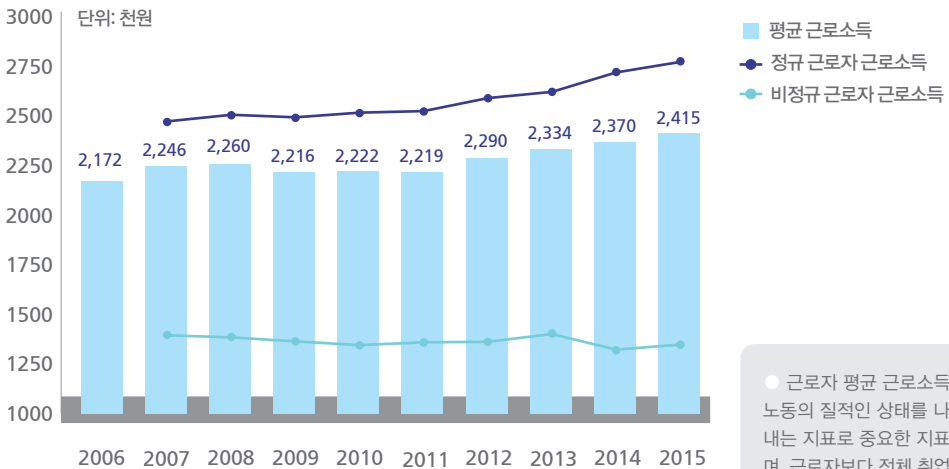
정의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의 월평균 금액

측정방법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전체근로자 월급여액 ÷ 소비자물가지수 × 100

- 2015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실질금액) 241만 5천원으로 2014년 237만원보다 4만 5천원 증가하였다. 2006년 217만 2천에서 2009년과 2011년의 감소 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277만 1천원, 비정규직은 134만 2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은 약 48.4% 정도이다.
- 정규직의 근로소득은 증가추세인 반면, 비정규직은 정체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급여액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241만 5천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급여액은 48.4%**

2006~2015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소비자물가지수 적용하여 실질화(2015년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은 노동의 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한 지표이며, 근로자보다 전체 취업자(근로자와 비근로자 포함)의 평균소득이 더욱 유용한 자료이나 현재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평균소득으로만 한정하여 파악함

significance

Worki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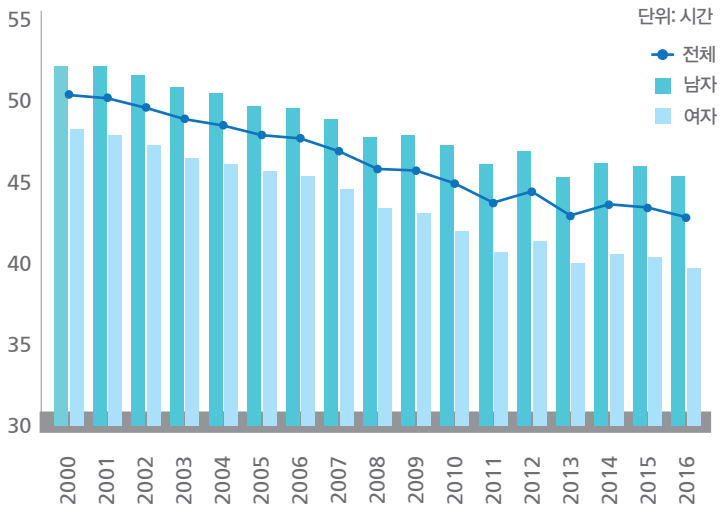
정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주일간 실제 일한 전체 근로시간으로 측정

2016년 43.0 시간, 전년대비 0.6시간 감소

- 2016년 주 평균 근로시간은 43.0시간으로 2015년 43.6시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00년(50.6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하고 있다.
- 2016년 남자는 45.4시간, 여자는 39.7시간으로 남자의 근로시간이 5.7시간 길다.
- 남자는 2000년 52.2시간에서 2016년 45.4시간으로 6.8시간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자는 48.3시간에서 39.7시간으로 8.6시간이 감소하여 남자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

2000~2016년 근로시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significance

●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임

저임금 근로자 비율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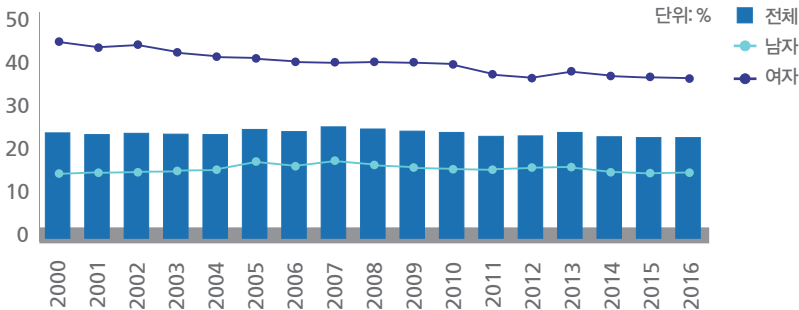
측정방법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유의사항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가정에 따라 조정한 자료임

- 2016년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3.5%로 2015년과 동일하고, 2000년 24.6%에서 2005~2009년에 25%대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다시 감소추세이다.
- 남자 15.3%, 여자 37.2%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21.9%p 높으나, 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00년 4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별 차이는 2000년 30.7%p에서 감소추세이다.
-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20% 이상으로 높고, 호주,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10% 중반이며, 덴마크, 핀란드는 10% 미만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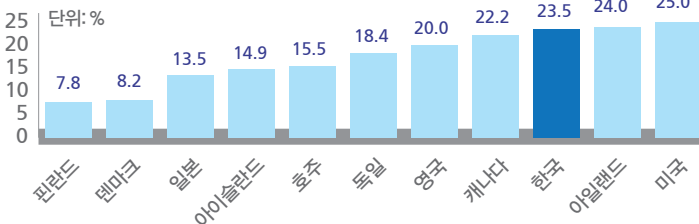
**2016년 23.5%,
남자 15.3%,
여자 37.2%**

2000~2016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출처: OECD, OECD Stats

2015년 주요 국가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출처: OECD, OECD Stats

●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significance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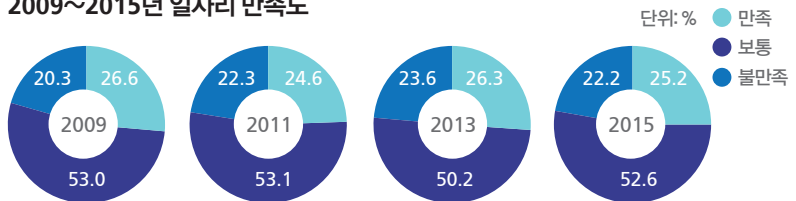
정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 대상자(취업자) 중 현재의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5년 25.2%,
2013년보다
1.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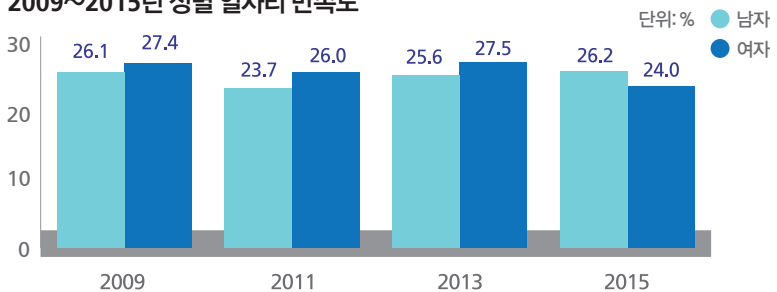
- 2015년 일자리 만족도는 25.2%로 2013년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2009년 26.6%에서 2011년 24.6%로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009~2013년에는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나, 2015년에는 남자가 26.2%, 여자 24.0%로 남자가 2.2%p 더 높다. 이는 여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2013년 27.5%에서 2015년 3.5%p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2015년 일자리 만족도



- '매우 만족' + '약간 만족'은 '만족',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제시.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09~2015년 성별 일자리 만족도



significance

●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임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03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삶의 질은 현재의 물질적 조건 뿐만 아니라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시스템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힘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하기 어려워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최근 추세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2개, 악화지표는 1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가입률과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부분의 복지실태를 보여주는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공적연금 가입률
-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공적연금 가입률



Public pension register rate

정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중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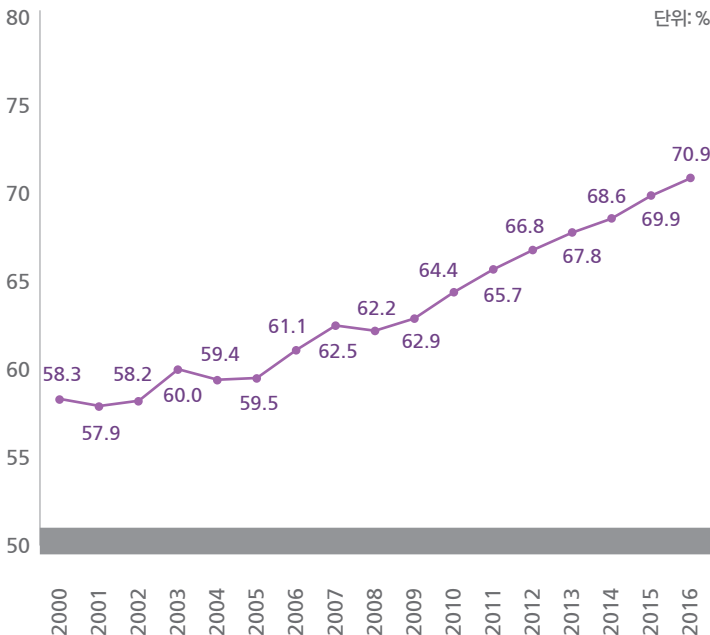
측정방법 공적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 가입자수 ÷ 만 18~59세 추계인구) × 100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자수를 연금가입 대상 전체인구로 나누어서 산출한 자료로 연금가입 필요성이 없는 학생, 주부 등이 전체인구로 포함됨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시계열 변화로 파악해야 함

- 2016년 공적연금 가입률은 70.9%로 18세부터 59세 인구 10명 중 7명 정도는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공적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69.9%에 비해 2016년에 1.0%p 증가하였다. 2000년 58.3% 이후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2004~5년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0.9%,
전년대비
1.0%p 증가**

2000~2016년 공적연금 가입률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significance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to GDP

정의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을 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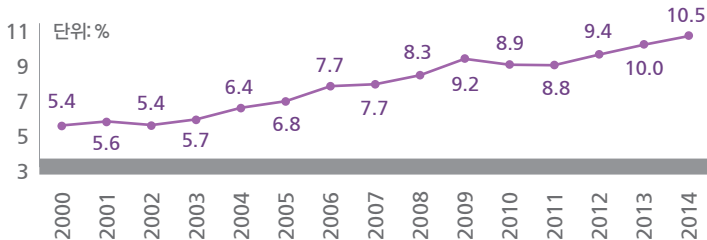
측정방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지출 금액 ÷ GDP) × 100

유의사항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임

**2014년 10.5%,
전년대비
0.5%p 증가**

- 2014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5%로 2013년 대비 0.5%p 증가하였다.
- 2000년 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2년, 2010~2011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 22.0%(2013년)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인 덴마크와 프랑스는 3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또한 19.1%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가량 높다.

2000~2014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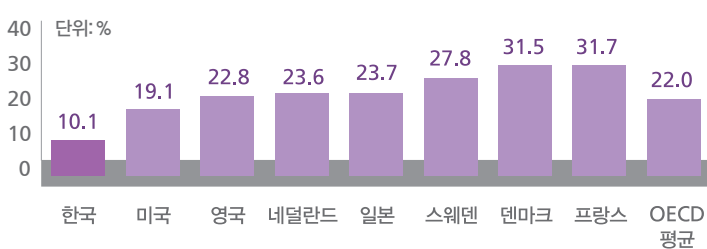
공공사회복지지출 일반정부 지출(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로 구분

significance

●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비율은 전체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3년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출처: OECD, OECD Stat(2017년 7월 기준)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Private medical expense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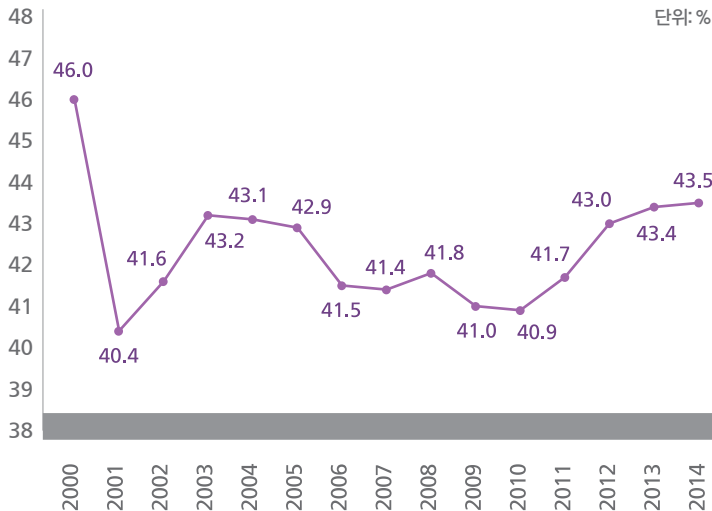
정의 경상의료비 중 민간재원으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로 측정됨

측정방법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민간재원 ÷ 경상의료비) × 100

-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재원(가계, 단체 기업 등)의 비율로 작성한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은 2014년 43.5%로 2013년 43.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2000년 46.0%에서 2001년 40.4%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이후 대략 43.0% 이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40.9%에서 2012년 43.0%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43.5%,
전년대비
0.1%p 증가**

2000~2014년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보건계정》

경상의료비 보건 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

민간재원 가계 직접 부담, 임의 가입 건강보험, 비영리 단체, 기업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 의료비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제도 중 의료 복지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 부담 의료비 비중에 따라 사회의 의료 복지 제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04

주거

Housing



주거란?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주거서비스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소비·자산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거서비스의 확보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추세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5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1개, 악화지표는 3개, 전기와 동일한 지표 1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주거면적, 주거비용, 통근/통학 소요시간 지표는 전기대비 악화되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전기와 동일하여 주거 관련 객관적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개인들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기대비 개선되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1인당 주거면적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통근/통학 소요시간
- ☹️ 주거비용

주관적 지표

- 😊 주거환경 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Living space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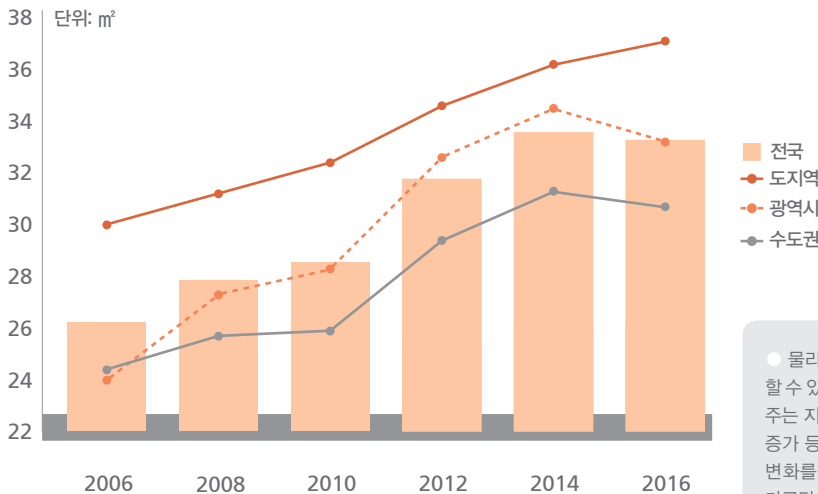
정의 1인당 주거면적은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 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

측정방법 1인당 주거면적 = (개별 가구의 주거전용 사용면적 ÷ 가구원 수)의 평균

- 2016년 1인당 주거면적은 33.2㎡로 2014년 33.5㎡에 비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26.2㎡에서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31.7㎡로 2010년에 비해 3.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2016년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0.7㎡, 광역시는 33.2㎡, 도지역은 37.1㎡로 도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6.4㎡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과 비교시 도지역의 주거면적은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은 감소하였다.

**2016년 33.2㎡,
2014년보다
0.3㎡ 감소**

2006~2016년 1인당 주거면적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물리적 주거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음

significanc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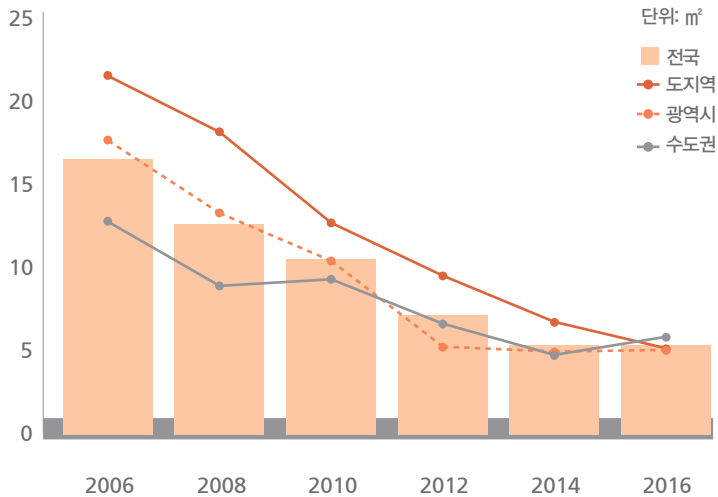
정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로 측정됨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총가구수) × 100

**2016년 5.4%,
2014년과 동일**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6년 5.4%(102만 7천 가구)로 2014년과 동일하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시설 및 침실,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로 2006년 16.6%에서 2008년 12.7%, 2012년 7.2%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4년 이후 어느 정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5.8%로 가장 높으며,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5.0%와 5.1%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하면 도지역의 미달가구 비율이 21.6%에서 5.1%로 주거시설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2006~201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words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14㎡의 방 1개에 임식부엌, 전용 수 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함

significance

•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 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

통근/통학 소요시간



Commuting time to school or office

정의 통근시간이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이고, 통학시간은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임

측정방법 통근 · 통학시 소요되는 평균 소요시간으로 산출

- 통근과 통학 소요시간은 2015년 30.9분으로 2010년보다 1.7분 증가했다.
- 읍면부보다 동부가 12.1분 가량,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13.5분 가량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보다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서울이 39.3분으로 가장 길고, 인천, 경기, 부산이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19.2분과 19.8분으로 짧게 나타났다.

**2015년 30.9분,
2010년보다 1.7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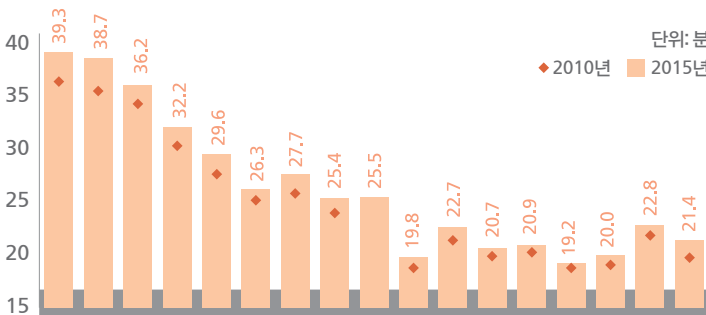
통근 · 통학 소요시간

단위: 분

	전국	읍면부	동부	수도권	비수도권
2010	29.2	20.4	31.1	35.4	23.1
2015	30.9	21.1	33.2	37.7	24.2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시도별 통근 · 통학 소요시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 출퇴근(통학) 시간은 개인의 하루 일과 중 매일 반복되는 시간으로 장시간 출퇴근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주거비용



Housing cost

정의 주거비용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측정됨

측정방법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중위(평균) 주택가격 ÷ 중위(평균) 연소득]

**2016년 5.6배,
2014년보다
0.9배 증가**

- 2016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로 측정한 주거비용은 5.6배로 2014년(4.7배)에 비해 증가했다.
-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증가하였고, 2014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이 6.7배로 가장 높고, 광역시는 5.3배, 도지역은 4.0배로 2006년과 비교하면 광역시의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9.8배로 가장 높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6배와 5.0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별 주거비용

단위: 배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4.2	5.7	4.1	3.3
2016	5.6	6.7	5.3	4.0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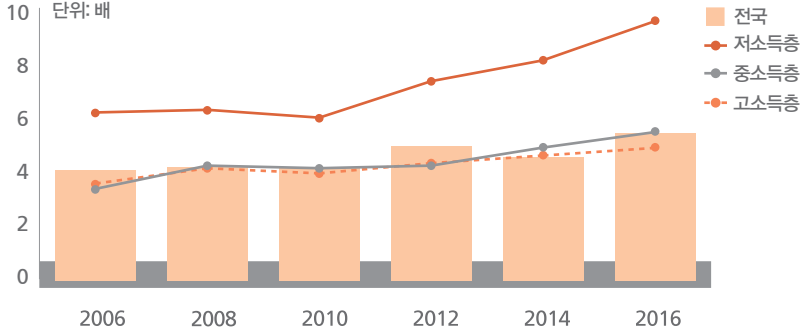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 Price Income Ratio)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significance

●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목적 이외에도 투자의 목적이나 신분상승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목적 때문에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주택가격은 개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

2006~2016년 소득계층별 주거비용

단위: 배



- 중위수 기준임
- 소득계층은 조사권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로 구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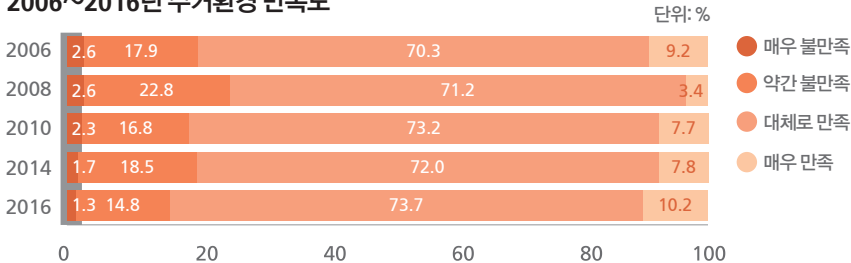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측정됨
측정방법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 83.9%로 2014년 79.8%에 비해 4.1%p 증가하였다.
- 2006년 79.5%에서 2008년 74.7%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80%내 외로 비슷한 수준에서 2016년에 83.9%로 증가하였다.
- 동부는 85.1%, 읍면부는 78.7%로 6.4%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 80.4%, 중소득층 85.1%, 고소득층 89.0%로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8.6%p 낮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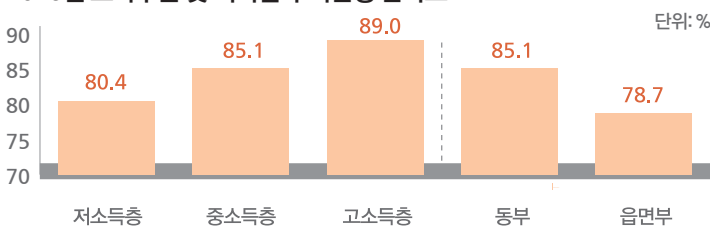
**2016년 83.9%,
2014년보다
4.1%p 증가**

2006~2016년 주거환경 만족도



-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제외
- 2006~2010년 '모름/무응답' 제외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소득수준 및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 소득계층은 조사권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로 구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한 지표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significance

05

건강

Health



건강이란?

건강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건강 상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건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 영역은 건강행위 및 환경과 건강상태로 구성된다.

최근 추세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5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44.4%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개선된 반면,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은 악화되고 있으며, 고혈압 유병률, 비만율 등이 악화된 것과 함께 개인들의 주관적인 건강평가 지표 또한 악화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보여주는 소득계층별 의료비충족률도 전년대비 악화되었다. 반면 개인들의 건강유지 활동을 보여주는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과 스트레스 인식정도, 당뇨 유병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기대 수명
-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 고혈압 유병률
- 😊 당뇨 유병률
-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 비만율
- 😞 소득계층별 의료비충족률

주관적 지표

- 😞 주관적 건강평가
- 😊 스트레스 인식정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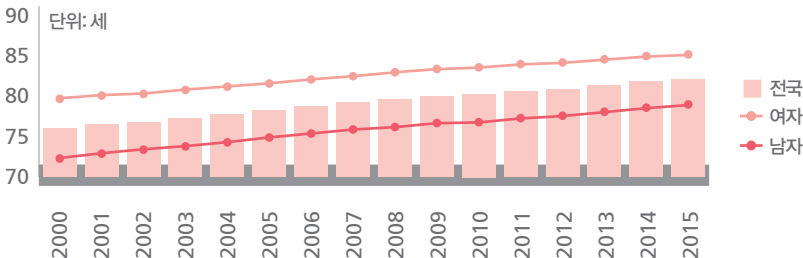
Life expectancy

정의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측정방법 0세의 기대여명

- 2015년에 태어난 0세의 기대여명은 82.1세로 2014년 81.8세에 비해 0.3세 증가하였다.
- 2000년 76.0세에서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로 증가하여 매년 약 0.3~0.5세 정도 증가하고 있다.
-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2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2년 더 길다. 이러한 남녀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2000년(7.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OECD 34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이며, 일본이 83.9세로 가장 높고 미국은 78.8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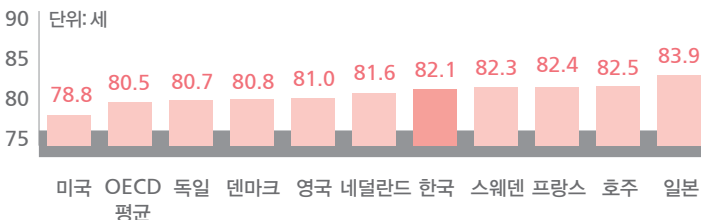
**2015년 82.1세,
전년대비
0.3세 증가**

2000~2015년 기대수명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2015년 주요 국가별 기대수명



●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구성되며, 사망수준에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수명이 사용됨. 기대수명은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significance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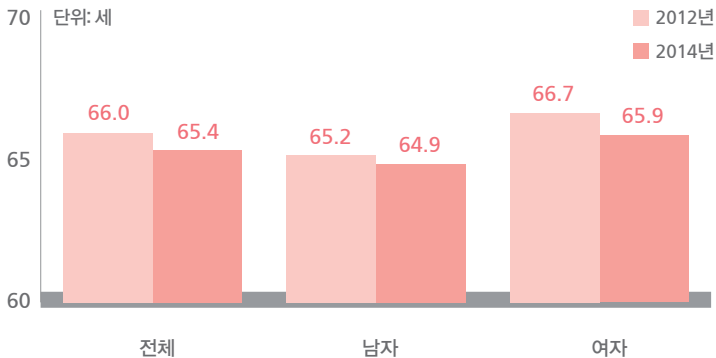
Life expectancy by health level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으로 측정
측정방법 《사회조사》의 유병기간으로 계산한 유병률을 생명표의 정치인구에 가중하여 산출

**2014년 65.4세,
2012년보다
0.6세 감소**

- 기대수명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건강상태를 고려한 기대수명인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은 2014년 65.4세로 2012년 66.0세에서 0.6세 감소하였다.
- 남자는 64.9세, 여자는 65.9세로 여자가 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2012년의 성별 격차(1.5년)보다 감소하였다.
-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에 비해 6년 이상 더 긴 것을 고려하면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에서는 남녀간 격차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 같은 기간의 기대수명과 비교해보면 2014년 기대수명은 81.8세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이 16.4세 더 짧게 나타났다. 건강수준별 기대여명과 기대수명과의 차이는 남자가 13.2세, 여자가 19.1세이다.

2012~2014년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words

연령별 정치인구 정확한 연령 x세에서의 생존자들이 x + n세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연수의 합계

significance

•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적을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음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년 주기)인 2주간 유병기간 일수로 작성된 결과임
-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고혈압 유병률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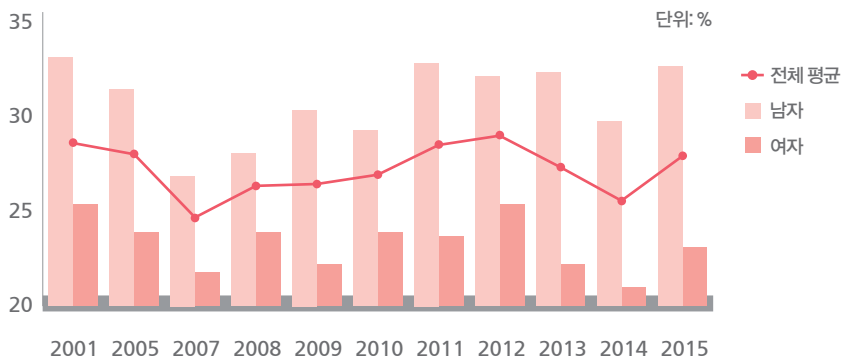
정의만 30세 이상 인구(조사대상자) 중 고혈압 유병자의 비율

측정방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

-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 유병률은 2015년 27.9%로 나타나 2014년 25.5%에 비해 2.4%p 증가하였다.
- 2001년 28.6%에서 2007년 24.6%로 감소한 후 2012년에는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2015년 남자는 32.7%, 여자는 23.1%로 남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9.6%p 높다.
- 2001년부터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계속 높은 고혈압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격차가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27.9%,
전년대비
2.4%p 증가**

2001~2015년 고혈압 유병률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 고혈압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위험 만성 질환의 유병률 중 하나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및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significance

당뇨 유병률



Diabetes prevalenc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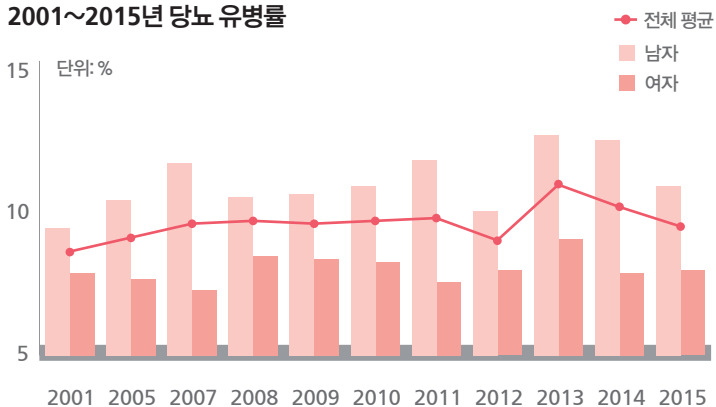
정의 만 30세 이상 인구(조사대상자) 중 당뇨 유병자의 비율

측정방법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의사진단,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

**2015년 9.5%,
전년대비
0.7%p 감소**

- 2015년 당뇨 유병률은 9.5%로 2014년(10.2%)보다 0.7%p 감소하였다.
- 2001년 8.6%에서 증가하여 9%대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11.0%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5년 남자는 11.0%, 여자는 8.0%로 남자의 당뇨 유병률이 3.0%p 더 높다.
- 남자의 당뇨 유병률은 2001년 9.5%에서 2013년 12.8%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당뇨 유병률은 2001년 7.9%에서 2013년 9.1%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2015년 당뇨 유병률



significance

● 당뇨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위험 만성 질환의 유병률 중 하나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주관적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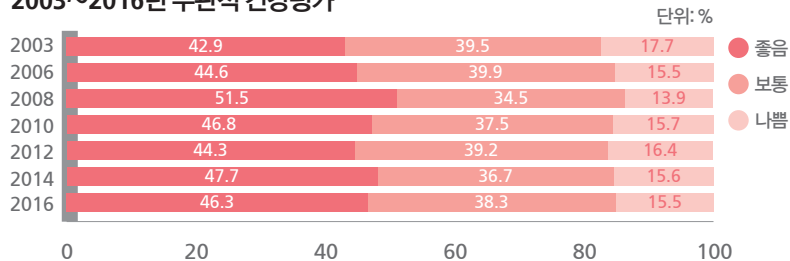
Subjective health evaluation

정의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

측정방법 만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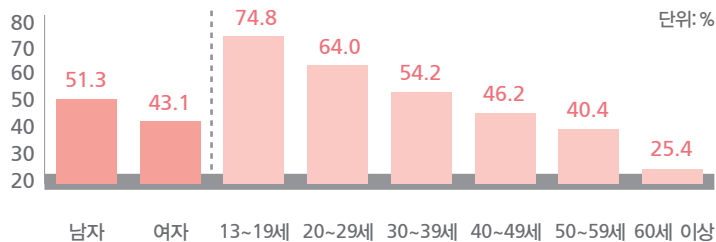
- 2016년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46.3%로 2014년 47.7%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2016년 46.3%, 2014년보다 1.4%p 감소**
- 2003년 42.9%에서 2008년 51.5%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46.8%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 남자는 51.3%, 여자는 43.1%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10대는 74.8%인 반면, 60세 이상은 25.4%만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2003~2016년 주관적 건강평가



- '좋은'은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나쁨'은 '매우 나쁘다'와 '나쁜 편이다'의 응답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만 15세 이상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별 주관적 건강평가



- 만 13세 이상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의료환경 이외에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significance

스트레스 인식정도



Stress self-recognition

정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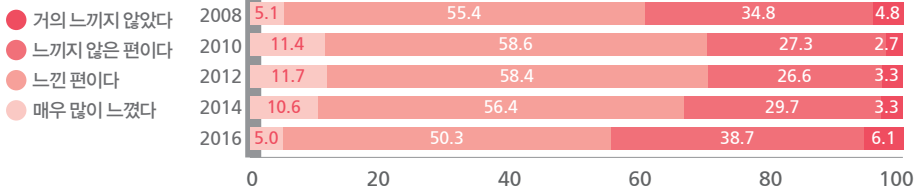
측정방법 만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와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6년 55.3%,
2014년보다
11.7%p 감소**

-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비율인 스트레스 인식 정도는 2016년 55.3%로 2014년 67.0%보다 11.7%p 감소하였다.
- 2008년 60.5%에서 2010년 70.0%로 증가한 이후 2014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 남자 52.1%, 여자 57.3%로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
- 연령대별로는 30~40대의 스트레스가 62.4%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지거나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8~2016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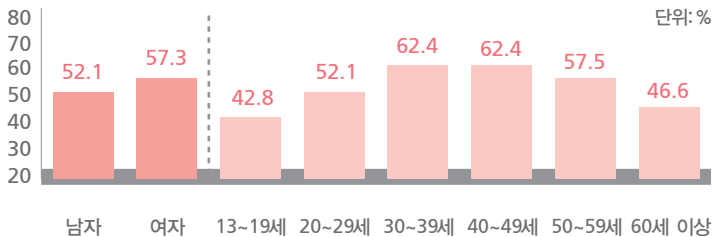
단위: %



- 만 15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별 스트레스 인식정도

단위: %



- 만 13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significance

●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규칙적 운동 실천율



Regular exercis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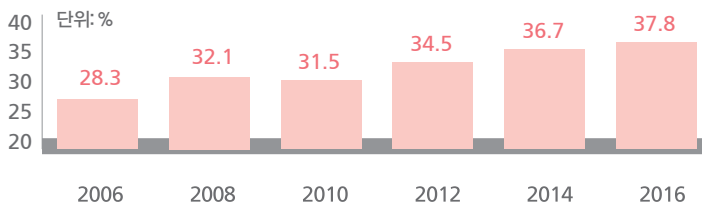
정의 평소 규칙적인 운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

- 2016년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37.8%로 2014년 (36.7%)에 비해 증가하였다.
- 2006년 28.3%에서 2012년 34.5%, 2014년 36.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남자는 41.3%, 여자는 34.9%로 남자가 6.4%p 더 높다.
-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45.9%로 가장 높으며, 30대는 3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20대 이하에서는 약 35%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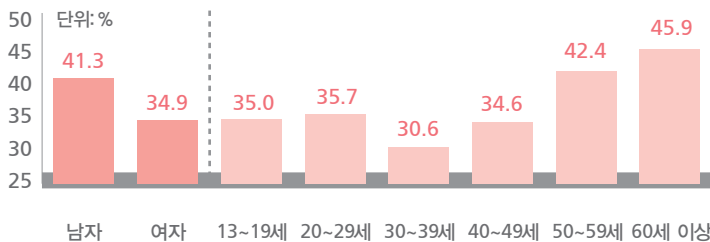
**2016년 37.8%,
2014년보다
1.1%p 증가**

2006~2016년 규칙적 운동 실천율



- 만 15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별 운동 실천율



- 만 13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을 사람들이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significance

Obesity rate

정의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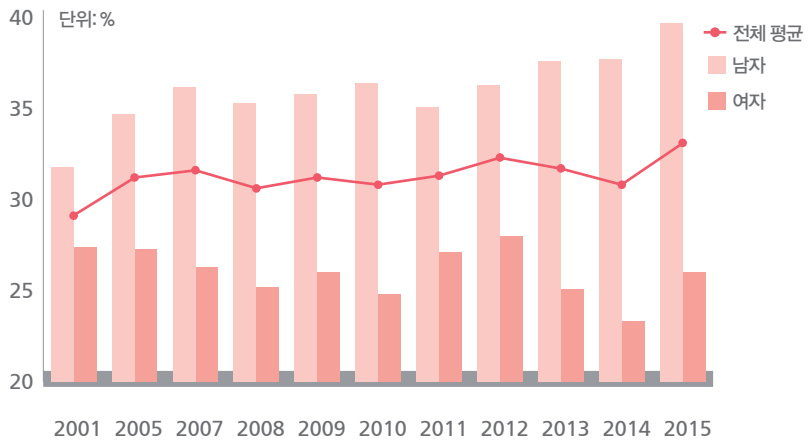
측정방법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 수 ÷ 만19세 이상 조사대상수) × 100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²

**2015년 33.2%,
전년대비
2.3%p 증가**

- 2015년 비만율은 33.2%로 2014년(30.9%)보다 2.3%p 증가하였다.
- 2001년 29.2%에서 2005년 31.3%로 증가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 33.2%로 증가하였다.
- 2015년 남자가 39.7%, 여자가 26.0%로 남자가 13.7%p 높다.
- 2001년에는 남자 31.8%, 여자 27.4%로 남녀간의 차이가 4.4%p에 불과하였으나 여자는 2001년 이후 감소추세인 반면 남자는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녀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2015년 비만율



• 출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significance

●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및 영양의 과잉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산업구조 및 생활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Unmet medical needs rate by income level

정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의 소득계층별 차이

측정방법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하' 집단의 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상' 집단의 의료미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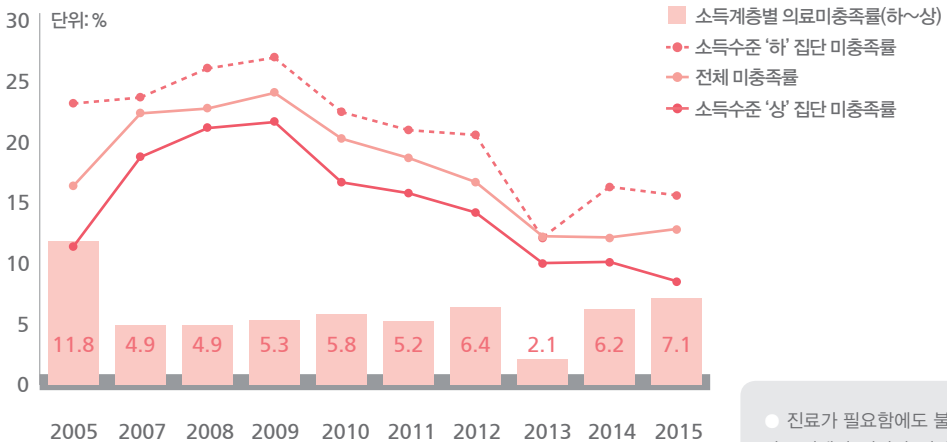
소득계층: 상, 상하, 중하, 하

의료미충족률(치과제외):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 2015년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은 7.1%p로 소득수준인 '하'인 집단이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에 비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이 7.1%p 높은 것을 의미하며 2014년 6.2%p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 의료미충족률은 2005년 16.4%에서 2009년 24.1%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의료미충족률은 소득계층이 '하'인 집단의 경우 2005년 23.2%에서 2015년 15.6%로 크게 감소한 반면, '상'인 집단은 같은 기간 11.4%에서 8.5%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2015년 7.1%p,
전년대비
0.9%p 증가**

2005~2015년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소득수준: 월가구 균등화 소득(월가구 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등의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함께 건강불평등을 보여주는 사회의 질 지표임

significance

06

교육

Education



교육이란?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원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평가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교육 영역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교육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교육기회), 교육의 삶의 질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교육자원) 그리고 기회의 확충과 자원투입의 확충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교육성과)로 분류된다.

최근 추세

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6개, 악화지표는 3개로 개선지표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중단율은 개선되었으나 학교교육의 효과, PISA 백분위 순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졸생 취업률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은 악화되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유아교육 취학률
- 😊 고등교육 이수율
- 😞 평생교육 참여율
- 😊 학업 중단율
-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 대졸생 취업률
- 😞 PISA 백분위 순위

주관적 지표

- 😞 학교 교육의 효과
- 😊 학교생활 만족도

유아교육 취학률



Preschool enrollment rate

정의 만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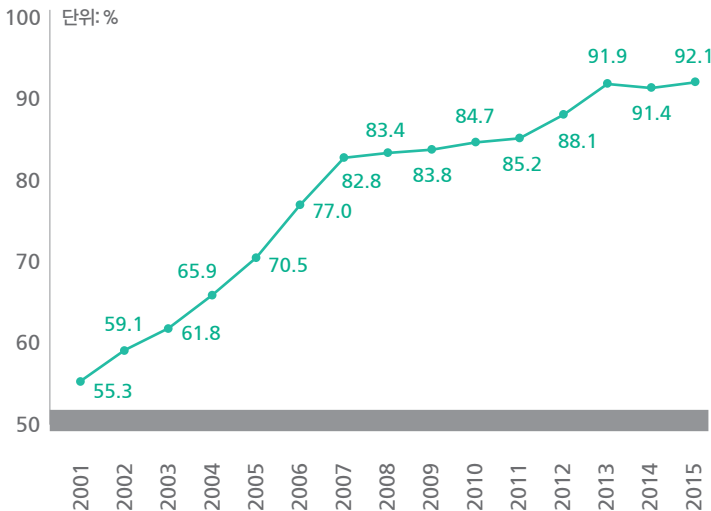
측정방법 유아교육 취학률 = $\frac{[\text{만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동수} + \text{유치원 원아수}]}{\text{취학적령 인구(만3~5세 추계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일부 만3세 미만이나 만6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이동이 포함될 수 있음

- 2015년 유아교육 취학률은 92.1%로 만 3~5세 아동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2014년 91.4%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 유아교육 취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01년 55.3%에서 거의 14년 만에 92.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특히 2004~2007년까지 매년 4~6%p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3년 91%를 넘어선 이후 어느 정도 정체된 추세를 보인다.

**2015년 92.1%,
전년대비
0.7%p 증가**

2001~2015년 유아교육 취학률



-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만6세 이상 포함), 유치원 원아(2015.4.1.기준, 만3세 미만 · 만 6세 이상 포함), 취학적령인구(만3세~5세)로 산정함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교육기회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임

significance

고등교육 이수율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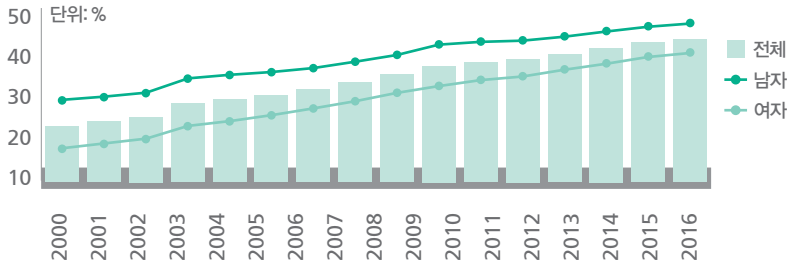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2015년 45.5%,
전년대비
0.9%p 증가**

- 2015년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은 45.5%로 2014년 44.6%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 2000년 23.9%에서 2005년 31.6%, 2010년 39.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5년 남자는 49.1%, 여자는 41.8%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나 남녀간 격차는 2000년 12.0%p에서 2015년 7.3%p로 감소하였다.
-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와 일본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5%)에 비해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고등교육 이수율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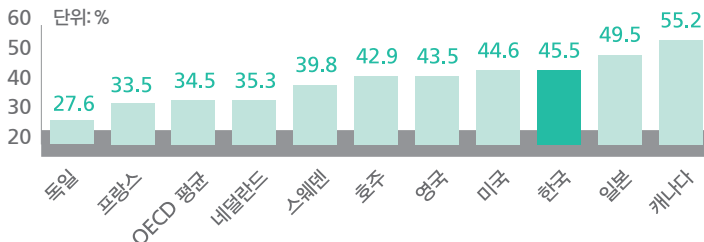
words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대학 등

significance

●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함

2015년 주요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평생교육 참여율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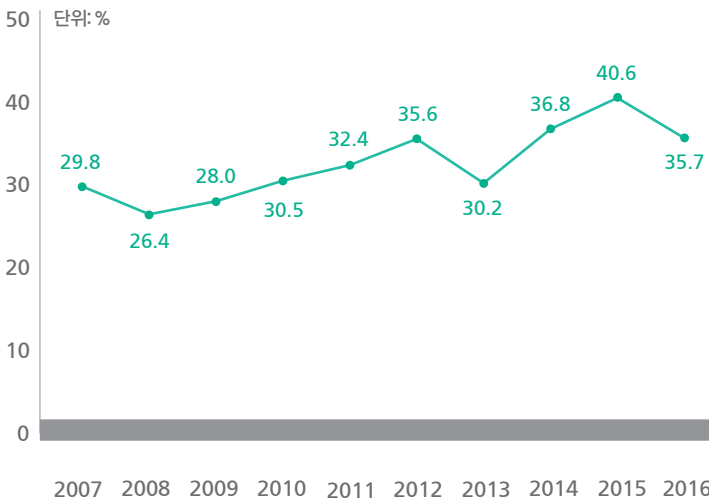
정의 25~64세 인구 중에서 평생교육(형식,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25~64세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평생교육(형식,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사람의 비율

- 2016년 평생교육 참여율은 35.7%로 2015년 40.6% 보다 4.9%p 감소하였다.
- 2007년부터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시계열이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7년 29.8%에서 2012년 35.6%, 2015년 40.6%로 증가하였다.
- 평생교육은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으로 나뉘는데 2016년 형식교육은 2.8%이고 비형식교육은 34.2%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형식교육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2016년 35.7%,
전년대비
4.9%p 감소**

2007~2016년 평생교육 참여율



형식교육 국가 학력체계 안에 포함된 체계적인 과정으로 “학력·학위” 인증됨(검정고시, 방송통신대 등)

비형식교육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직장교육, 학원, 문화센터, 인터넷 강좌 등)

● 평생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웰빙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기술변화에 대응하게 하여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아울러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임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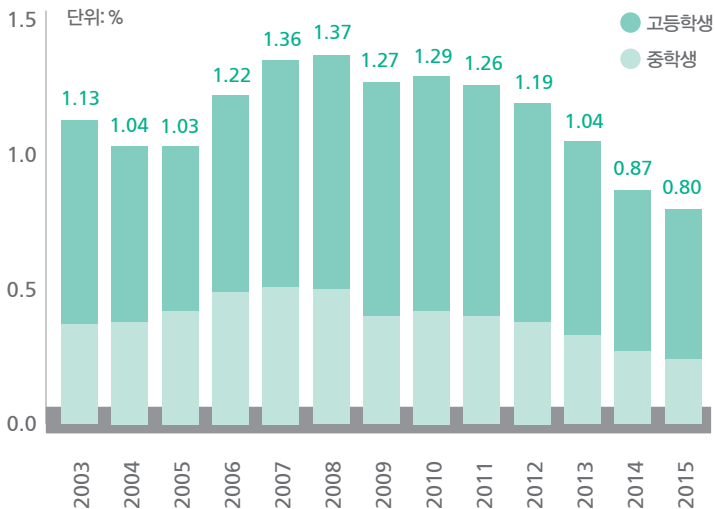
Drop-out rate in school

정의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
 측정방법 학업 중단율 = (중학생(유예 및 면제자)수 + 고등학생(제적 · 중퇴 · 휴학자)수) ÷ 중,고 재적학생 수 × 100

**2015년 0.8%,
전년대비
0.07%p 감소**

- 통계자료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학업중단자수는 2015년 중학생 7,978명, 고등학생 18,861명으로 중 · 고등학생 재적학생수의 0.8%로 나타났다.
- 2003년 학업중단율은 1.13%였으나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1.22%에서 2008년 1.37%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중학생은 200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고등학생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2015년 학업 중단율



significance

●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로 학교 밖 학생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활용가능한 학업중단율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함

- 학업 중단자수는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수, 고등학생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수임(해외출국자 제외)
- 2015년 학업중단자수 2015.3.1.~2016.2.28., 재적학생수 2015.4.1. 기준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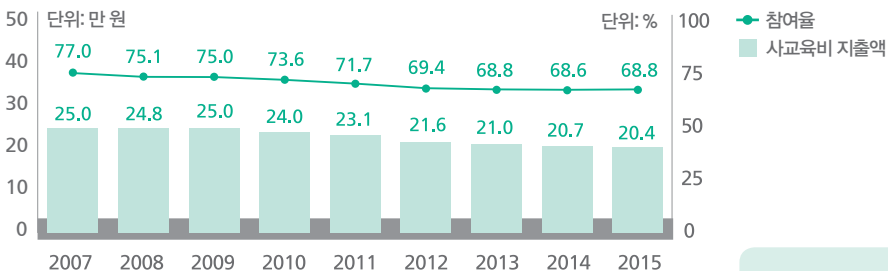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정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사교육비 지출액
 측정방법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 실질사교육비 총액 ÷ 학생수 ÷ 12개월

- 2015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실질)은 20만 4천원으로 전년 보다 3천원 감소하였으며, 2007년 25만원에서 감소추세이다.
- 사교육 참여율도 2007년 77.0%에서 2015년 68.8%로 감소하였다.
- 학교급별로 사교육비 지출액(명목)을 보면 2015년 초·중·고등학생은 23만 1천원, 중학생 27만 5천원, 고등학생 23만 6천원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등학생이 80.7%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50.2%이다.

**2015년 20만 4천원,
전년보다
3천원 감소**

2007~2015년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



- 사교육관련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가중치 있음)함.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2015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

	초·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액	23.1	27.5	23.6
참여율	80.7%	69.4%	50.2%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5.

월평균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EBS를 제외한 통신강의를 포함한 사교육에 매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만원 단위로 측정한 수치임

●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졸생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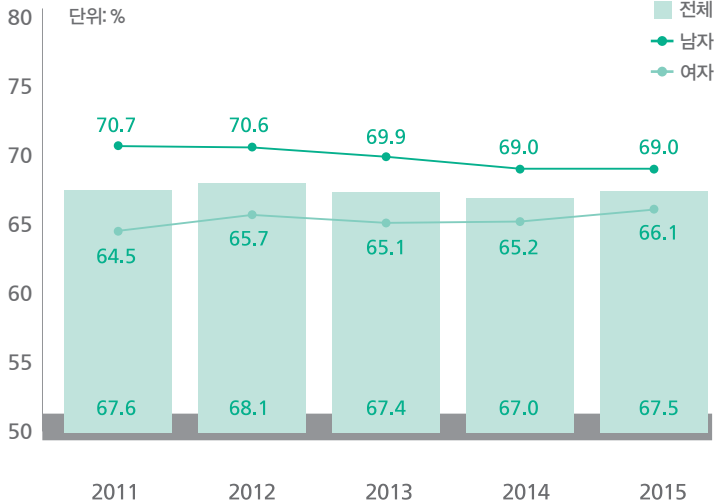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대학졸업생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2015년 67.5%,
전년대비
0.5%p 증가**

- 대학 졸업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대졸생 취업률은 2015년 67.5%로 2014년 67.0%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 2011년 67.6%에서 2012년 68.1%로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 남자의 취업률은 69.0%, 여자는 66.1%로 남자가 여자보다 2.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취업률은 2011년 64.5%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녀간 대졸생 취업률의 차이는 2011년 6.2%p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1~2015년 대졸생 취업률



words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취업자 조사기준일(12월31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청(사)업자, 프리랜서

significance

●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 전체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등 포함
- 2011년부터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취업률 산출(12월31일 기준)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PISA 백분위 순위



Percentage-based PISA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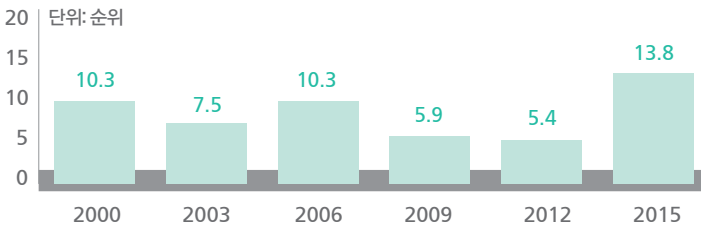
정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 수학, 읽기, 과학 각 영역별 백분위 순위의 평균
측정방법 백분위 순위 = 연도별 다른 참여국가 수를 표준화하기 위해 1~100으로 나라별 순위를 환산

유의사항 PISA 순위는 각 영역별 평균점수에 대한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범위로 제시되며, 세 영역(읽기, 수학, 과학)의 총점이나 순위를 산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표화 과정에서 각 영역별 백분위 순위의 단순합산 평균은 가공된 값으로 해석시 유의

- 2015년 OECD PISA 시험의 백분위 순위는 13.8위로 2012년 5.4위에서 하락하였다.
- PISA 백분위 순위는 2000년 10.3위에서 2009년 5.9위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감소하였다.
- 과목별 순위로 보면, 수학이 1~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읽기는 3~8위, 과학은 5~8위로 나타났다.
- 수학은 지속적으로 1~2등의 순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읽기는 2006년 이후 최상위권에서 최근 순위가 낮아졌으며, 과학은 2009년 2~4등에서 최근 낮아진 추세를 보인다.

**2015년 13.8위,
2012년보다 하락**

2000~2015년 PISA 백분위 평균 순위



- 각 연도의 과목별 순위를 평균한 백분위 순위로 1~100등으로 환산됨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2015년 PISA 과목별 순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읽기	6(29)	2(31)	1(34)	1~2(34)	1~2(34)	3~8(35)
수학	2(29)	2(31)	1~2(34)	1~2(34)	1(34)	1~4(35)
과학	1(29)	3(31)	8(34)	2~4(34)	2~4(34)	5~8(35)

- PISA 순위는 95% 신뢰수준에서 국가별 최고~최하 추정등수를 제공해 중위등수로 계산함.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PISA 각국의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OECD에서 주관함,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라고 약칭하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라고도 함

●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취로 나타나는 지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학교교육의 효과



Efficiency of schoo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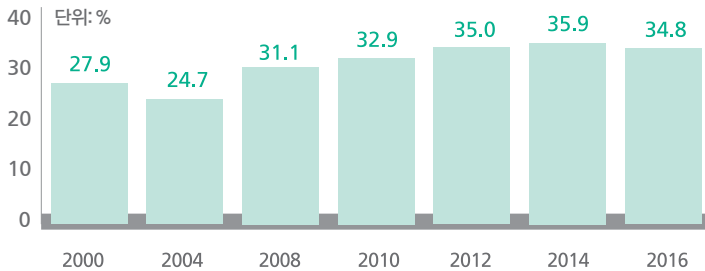
정의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및 직업에 있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학교교육의 생활, 취업 및 직업의 효과에 대해서 '매우 효과있다'와 '약간 효과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2016년 34.8%,
2014년보다
1.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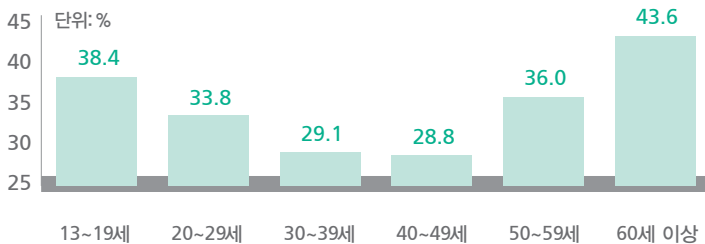
- 2016년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로 2014년 35.9%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 2000년 27.9%에서 2008년 31.1%, 2014년 35.9%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최근 약간 감소하였다.
- 30~40대는 3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43.6%로 가장 높고, 13~19세 연령층도 38.4%로 높게 나타났다.

2000~2016년 학교교육의 효과



- 만 15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연령대별 학교교육의 효과



- 만 13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significance

●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

학교생활 만족도



School lif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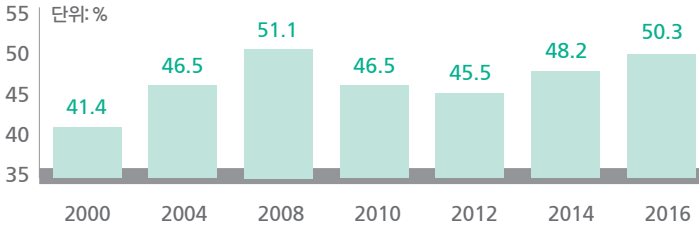
정의 현재 재학생(중학생~대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학생) 중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2016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0.3%로 2014년 48.2%보다 2.1%p 증가하였다.
- 2000년 41.4%에서 2008년 51.1%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 대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남·여학생 모두 51.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 재학생은 남학생 55.7%, 여학생 50.7%로 초·중·고 남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5.0%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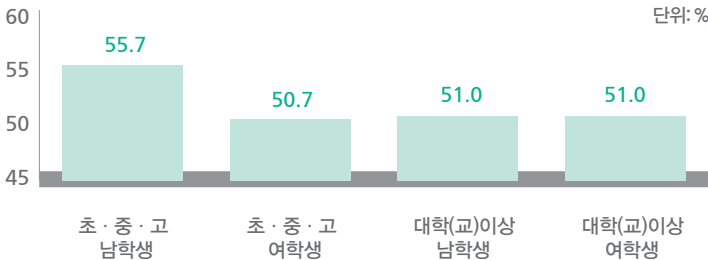
**2016년 50.3%,
2014년보다
2.1%p 증가**

2000~2016년 학교생활 만족도



- 만 15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재학정도별·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 만 13세 이상 인구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주관적 차원에서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규 교육과정 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significance

07

문화·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 · 여가란?

노동시간과 대비해서 여가시간은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최근지표

문화 ·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2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나 여가활용 만족도 등 개인적 측면에서의 여가활용 관련 자원은 악화된 반면, 여행일수, 문화활동, 문화여가 지출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여가활동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평균 여가시간
- 😊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 문화여가 지출비율

주관적 지표

- ☹️ 여가활용 만족도
-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평균 여가시간



Average leisur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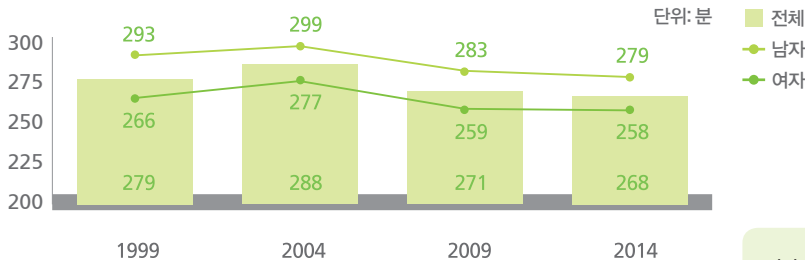
정의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1일 평균 시간

측정방법 10세 이상 인구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1일 평균 시간(요일 평균)

- 2014년 1일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28분으로 5년 전인 2009년보다 3분 감소하였다. 1999년 여가시간은 4시간 39분으로 주5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14년 남자의 여가시간은 4시간 39분으로 여자(4시간 18분)보다 21분 더 길다. 남녀간의 여가시간 차이는 1999년 27분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 30~40대의 여가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으며, 60대의 여가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30대보다 거의 3시간 가량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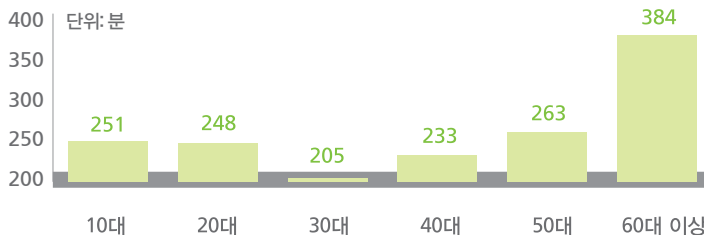
**2014년
4시간 28분,
5년전보다 3분 감소**

1999~2014년 성별 여가시간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2014년 연령대별 여가시간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

여가시간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이용(대중매체),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박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활동시간 포함

● 여가시간은 여가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적절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여가활동 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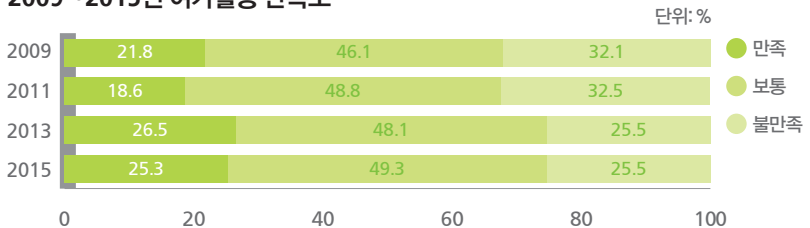
정의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여가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5년 25.3%,
2013년보다
1.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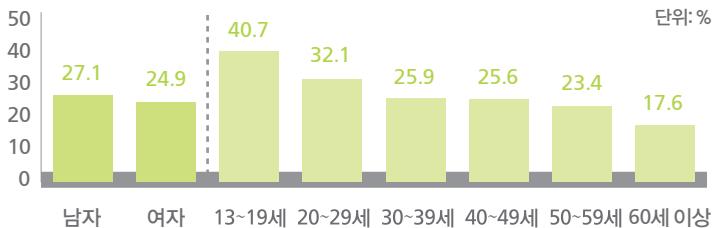
-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비율은 2015년 25.3%로 2013년 26.5%에 비해 1.2%p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증가추세다.
- 남자는 27.1%, 여자는 24.9%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13~19세는 40.7%가 만족하는데 비해 60세 이상은 17.6%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5년 여가활동 만족도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 비율을 합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5년 성별 · 연령대별 만족비율



significance

여가생활의 만족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짐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 비율을 합산.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Perceived lack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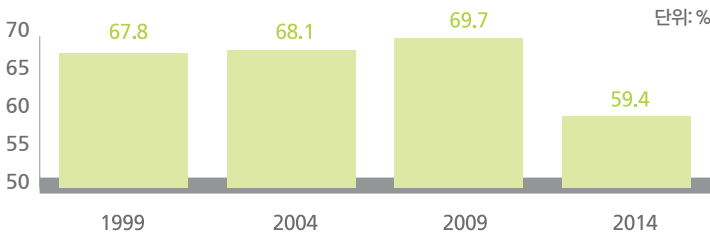
정의 시간활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표로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0세 이상 조사대상자중 시간 부족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가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4년 59.4%로 2009년 69.7%보다 10.3%p 감소하였다.
- 시간 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1999년 67.8%에서 2009년 69.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에 59.4%로 감소하였다.
- 2014년 남자가 61.4%, 여자는 57.7%로 남자가 여자보다 3.7%p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7.0%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24.8%로 가장 낮으며, 10대의 경우도 63.8%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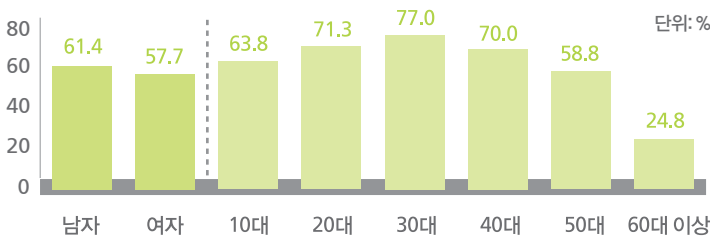
**2014년 59.4%,
5년전 대비
10.3%p 감소**

1999~2014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2014년 성별 · 연령대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

●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생활시간(시간압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significance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Average travel days per person

정의 지난 1년간 1인당 국내여행(숙박 및 당일여행)과 해외여행의 평균 참가일수

측정방법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국내여행 참가일수 + 해외여행 참가일수 (만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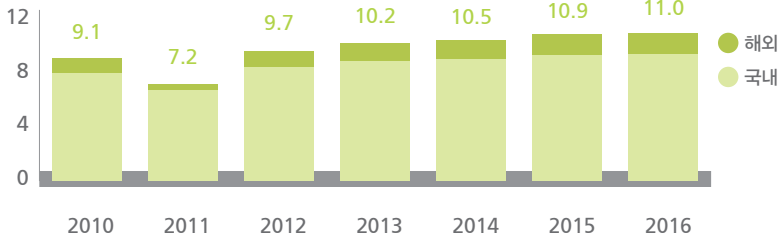
• 평균 여행일수는 15세 이상 전국민(여행 무경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일수를 환산

2016년 11일, 전년대비 0.1일 증가

- 2016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국내의 여행일수는 11일로 2015년의 10.9일과 거의 유사하다. 국내의 여행일수는 2010년 9.1일에서 2013년 10.2일, 2016년 11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여행일수는 9.39일, 해외여행일수는 1.62일로, 국내여행일수는 2010년의 7.99일보다 1.4일 증가하였고, 해외여행일수는 같은 기간 1.11일에서 1.62일로 0.51일 증가했다.
- 여행경험률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0년 72.8%에서 2016년 89.5%로 16.7%p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은 같은 기간 10.8%에서 17.3%로 6.5%p 증가하였다.

2010~2016년 1인당 국내외 평균 여행일수(추정치)

단위: 일/인



- 만1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12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43,902,277명)를 기준으로 함.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2010~2016년 여행경험률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72.8	81.6	85.2	86.5	86.4	87.9	89.5
해외	10.8	4.5	12.7	12.9	13.9	16.6	17.3

- 지난 1년간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words

국내여행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 위락, 휴가, 건강, 치료, 종교, 성지순례인 경우

해외여행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 위락, 휴가, 건강, 치료, 종교, 성지순례,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 훈련, 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활동, 업무상 목적 등인 경우

significance

• 여가시간 활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였는가와 관련해서 여가활동으로 가장 선호되는 여행을 얼마나 자주, 많이 향유하였는가 중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Participation rate in culture, art, and sports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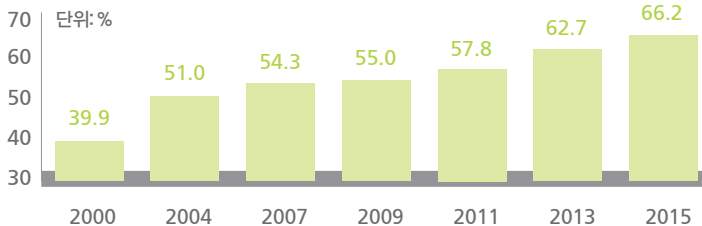
정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및 스포츠를 관람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15세 이상 조사대상인구 중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

- 2015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66.2%로, 2000년 39.9%에서 2004년 51.0%로 4년만에 11.1%p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세부적으로는 영화관람이 88.1%로 가장 높고, 박물관, 음악연주회,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은 26~19% 내외이다.
-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관람률이 1.9%p 높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80% 이상이나, 100만원 미만의 경우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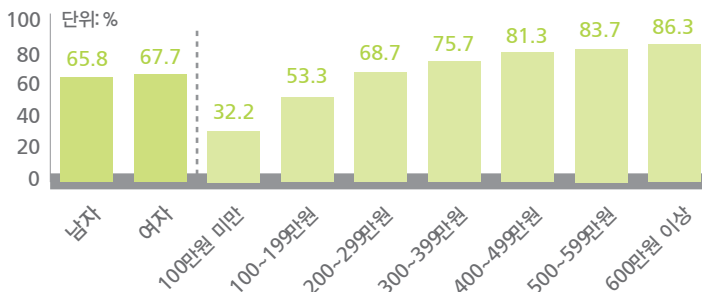
**2015년 66.2%,
2013년보다
3.5%p 증가**

2000~2015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5년 성별·가구소득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 문화예술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

significance

문화여가 지출비율



Ratio of consumption expenditure on cultural or leisur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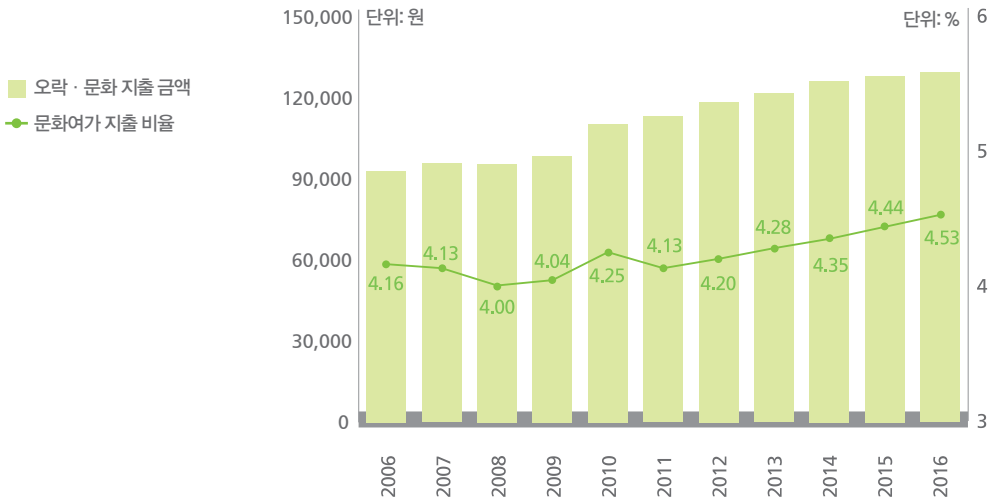
정의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중 문화여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측정방법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 = (월평균 오락 · 문화비 ÷ 월평균 가계지출) × 100

**2016년 4.53%,
전년대비 0.09%p
증가**

- 2016년 가구의 문화여가 지출 월평균 금액은 12만 9천원으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문화여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53%이다. 2015년(12만 8천원) 대비 1천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비율은 0.09%p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문화여가 지출비율은 2006년 4.16%에서 2010년 4.25%, 2015년 4.44%로 증가추세이다. 다만 2008~9년에는 문화여가 지출비율이 4.0% 정도로 2006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6~2016년 문화여가 지출비율



significance

●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1인 이상 전국가구(농가제외) 대상, 명목금액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가족·공동체

Family / Community



가족 · 공동체란?

가족과 공동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가족과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 관계에 기초하여 돌봄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과 공동체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최근 추세

가족 · 공동체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4개로 악화지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기 대비 개선되어 사람들간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관계 측면은 개선된 반면, 가족 구성 형태를 보여주는 한부모 가구와 독거노인 비율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한부모 가구 비율
- ☹️ 독거노인 비율
- 😊 자살률
- 😊 사회적 관계망
- ☹️ 사회단체 참여율

주관적 지표

- 😊 가족관계 만족도
- ☹️ 지역사회 소속감

가족관계 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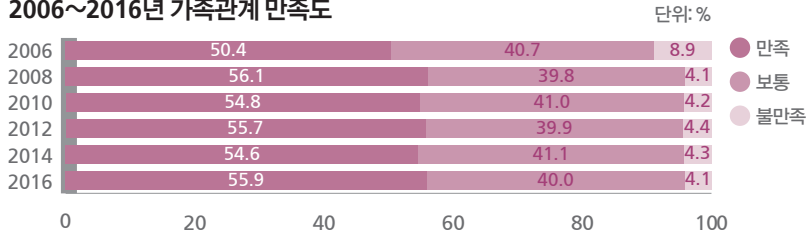
정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2016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55.9%로 2014년 54.6%에서 1.3%p 증가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06년 50.4%에서 2008년 56.1%로 증가한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2016년 여자(54.7%)보다 남자(58.2%)의 만족도가 3.5%p 더 높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13~19세의 72.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7.9%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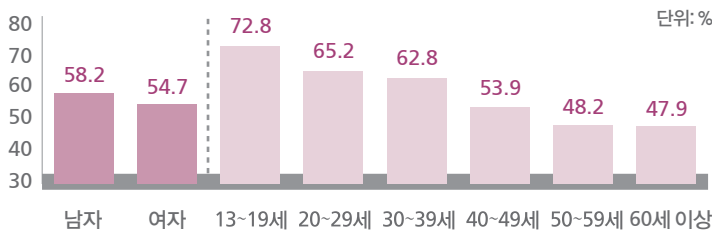
**2016년 55.9%,
2014년보다
1.3%p 증가**

2006~2016년 가족관계 만족도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 합산, '불만'은 '매우 불만'과 '약간 불만'의 응답비율 합산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임

significance

한부모 가구 비율



Single-parent household rate

정의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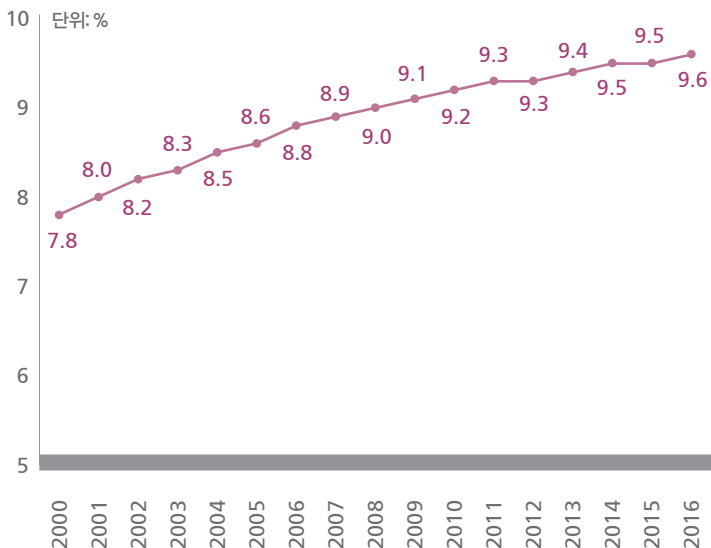
측정방법 한부모 가구 비율 = $\{(\text{부}+\text{자녀})\text{가구수} + (\text{모}+\text{자녀})\text{가구수}\} \div \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현재 가용한 자료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제한되지 않아 지표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함

2016년 9.6%,
전년대비
0.1%p 증가

- 2016년 한부모 가구는 모두 181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9.6%이다. 이러한 비율은 2000년 7.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8.6%, 2010년 9.2%, 2015년 9.5%로 증가하였다.
-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자녀의 연령이 제한되지 않아 성인 자녀와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비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 비율의 증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증가와 자녀의 미혼율의 증가로 인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2000~2016년 한부모 가구 비율



significance

● 한부모 가구 구성원은 소득의 상실에 따른 빈곤의 위험, 경제활동과 가사 및 자녀 양육의 병행으로 인한 한부모의 역할과중, 사회관계망 제한 등의 현실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한 지표임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며, 가구주의 연령은 전연령층임.
-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년도.

독거노인 비율



Live-alone elderl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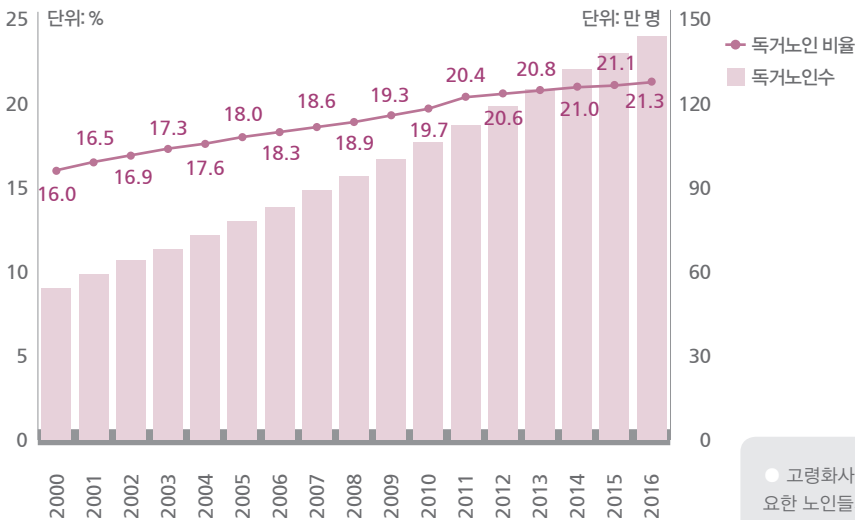
정의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측정방법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1인가구 ÷ 65세 이상 인구수) × 100

- 2016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144만 2천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1.3%로 나타났다.
-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05년 18.0%, 2010년 19.7%, 2015년 21.1%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39만 4천명에서 2016년 676만 2천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독거노인수는 2000년 54만 3천명에서 2016년 144만 2천명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21.3%,
전년대비
0.2%p 증가**

2000~2016년 독거노인 비율 · 독거노인수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관계 측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한 지표

significance

자살률



Suicid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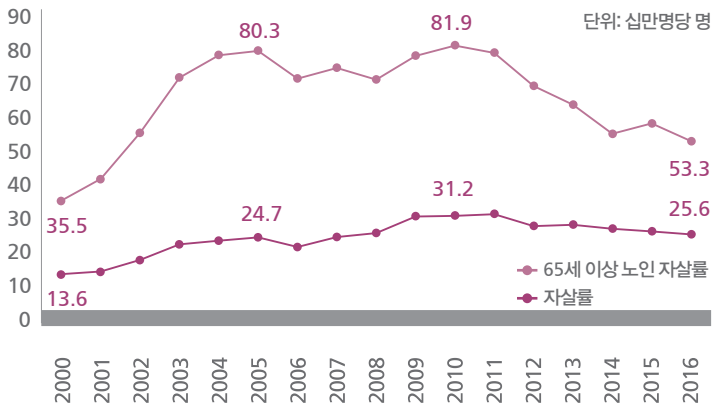
정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방법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016년 25.6명,
전년대비
0.9명 감소**

- 2016년 자살자수는 13,092명으로 인구 십만명당 25.6명이다.
- 자살률은 2000년 인구 십만명당 13.6명에서 2005년 24.7명으로 5년간 1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16년 53.3명(인구십만명당)으로 2000년 35.5명에서 2003년 72.3명으로 두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1.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일본(18.7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00~2016년 자살률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2013년 주요 국가별 자살률

영국	독일	호주	OECD	미국	일본	한국
7.5	10.8	11.2	12.4	13.1	18.7	28.7

- 2010년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인구 십만명 당 자살사망자수임
- 출처: OECD, OECD Stat.

significance

● 자살 자체는 개인적 현상이지만,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자살률은 한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사회적 관계망



Social relation network

정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각 상황(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 돈을 빌릴 경우, 이야기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도움 받을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단순평균

- 인적, 경제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망은 2015년 69.6%로 2013년보다 2.2%p 증가하였다.
-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곳’은 76.8%, ‘급히 돈을 빌릴 곳’은 49.8%,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는 82.3%가 있다고 응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낮아져 60세 이상은 61.0%로 20대(77.6%)에 비해 16.6%p 낮다.

**2015년 69.6%,
2013년보다
2.2%p 증가**

2009~2015년 사회적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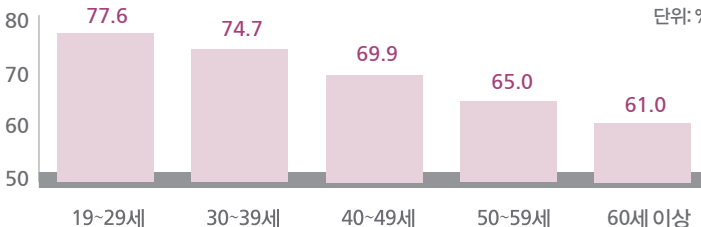
단위: %

	2009	2011	2013	2015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곳이 있다	76.6	75.9	74.7	76.8
급히 돈을 빌릴 곳이 있다	48.6	48.4	46.7	49.8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있다	81.3	80.9	80.8	82.3
평균	68.8	68.4	67.4	69.6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5년 연령대별 사회적 관계망

단위: %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significance

사회단체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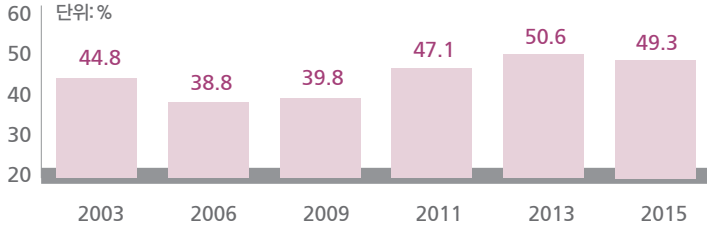
정의 지난 1년간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각각의 사회단체 중 하나라도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율

**2015년 49.3%,
2013년보다
1.3%p 감소**

- 2015년 사회단체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49.3%로 2013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6년 38.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친목 및 사교단체’가 56.4%로 가장 높으며, 종교단체(18.2%), 취미/스포츠/레저단체(15.1%)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남자가 50.5%로 여자(47.3%)보다 3.2%p 높으며,
- 40~50대가 각각 56.7%, 59.1%로 높고, 10대는 31.9%로 가장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 60세 이상부터 다시 낮아진다.

2003~2015년 사회단체 참여율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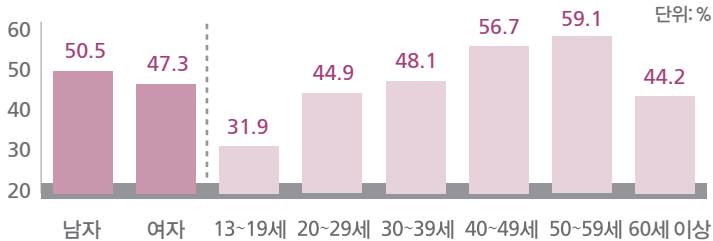
words

사회단체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significance

●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 보고 있음

2015년 성별 ·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5.

지역사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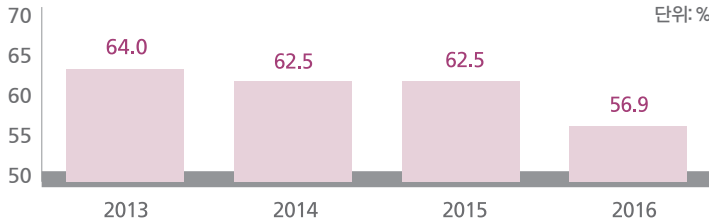
정의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도로 측정

측정방법 만 19세 ~ 69세 조사대상자 중 "현재 거주지역(시도)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매우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016년 56.9%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소속감은 2013년 64.0%에서 2014년 62.5%로 2016년 56.9%로 감소추세이다.
- 30대 이하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50% 이하로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55.1%, 50대는 63.9%, 60대는 71.6%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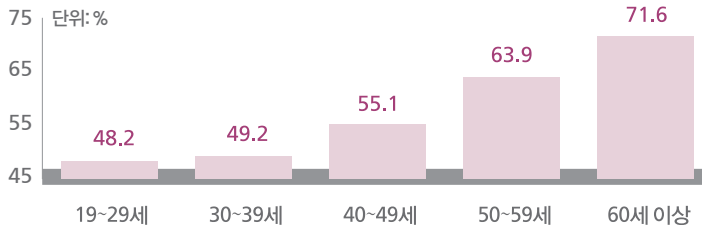
**2016년 56.9%,
전년대비
5.6%p 감소**

2013~2016년 지역사회 소속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연령대별 지역사회 소속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significance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란?

집단 간 차이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및 시장의 작동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균형을 유지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여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선정하였다.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이에 대한 다수의 향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의 질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뿌리내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무, 시민적 권리, 정치참여, 신뢰를 중분류로 설정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한 결과 신뢰가 이루어진다.

최근 추세

시민참여 영역의 7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2개, 악화된 지표는 5개로 최근 추세로 비교했을 때 악화된 지표의 비율은 71.4%를 차지하고 있다. 투표율이나 시민의식 등 개인의 정치참여나 시민의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자기 역량 인식과 사회의 부패 정도와 신뢰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도 과거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투표율
-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주관적 지표

-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 시민의식
- 😞 부패인식지수
- 😞 대인신뢰
- 😞 기관신뢰

투표율



Voting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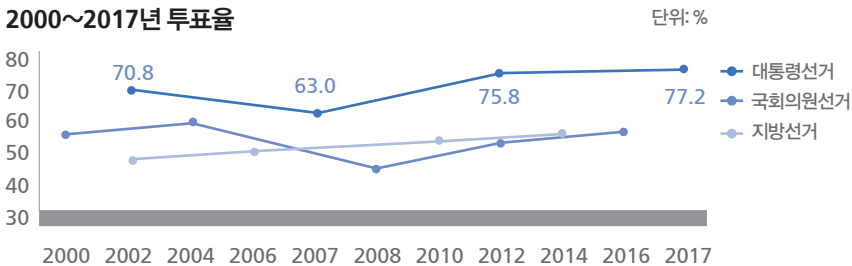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대통령 선거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 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로 5년전인 2012년 75.8%보다 1.4%p 증가하였다.
-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2년 70.8%에서 2007년 63.0%로 낮아진 이후 다시 증가추세며, 참고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광주와 세종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충남과 제주는 72%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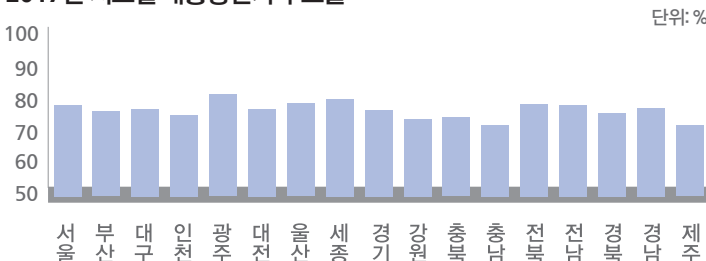
**2017년 77.2%,
5년전보다
1.4%p 증가**

2000~2017년 투표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년도;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년도.

2017년 시도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2017.

●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임.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임

significance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정의 개인의 행위가 지역의 정치 및 행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

측정방법 만 19~69세 조사대상자 중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2개 항목)의 5점만점 평균값

**2016년 2.6점,
전년대비
0.13점 감소**

-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은 2016년 5점 만점 중 2.6점으로 나타났다.
- 2013년 2.8점에서 2014년 2.65점, 2015년 2.73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2.7점,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2.5점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단위: 점/5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평균값)
2013	2.90	2.70	2.80
2014	2.70	2.60	2.65
2015	2.80	2.66	2.73
2016	2.70	2.50	2.60

words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항목

①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②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significance

●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로 정치적인 행동과 참여가 실제 정치 및 행정 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5점 만점의 평균값을 역코딩한 값으로 값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이 높음.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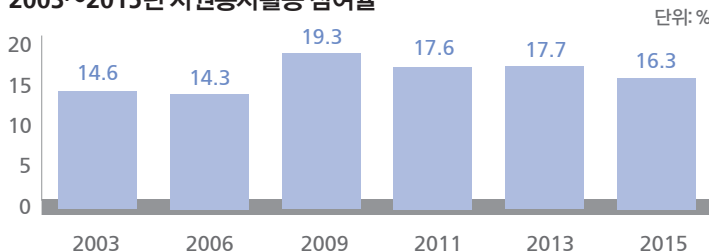
정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6.3%로, 2003년 14.6%에서 2009년 19.3%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자원봉사가 58.6%로 가장 높으며, ‘환경보전, 범죄예방’ (19.1%),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15.4%) 순으로 나타난다.
- 13~19세의 참여율이 76.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20~30대보다 40~50대의 참여율이 4%p 가량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7.8%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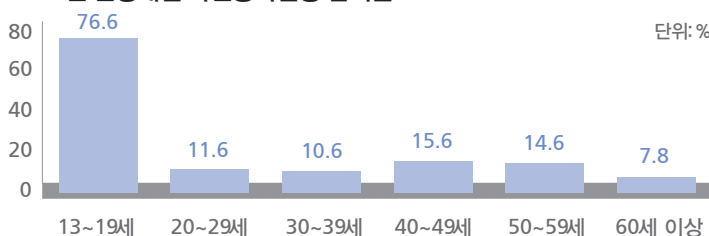
**2015년 16.3%,
2013년보다
1.4%p 감소**

2003~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5년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이 증대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만족감과 시민의식이 고양될 수 있음.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significance

시민의식



Civic 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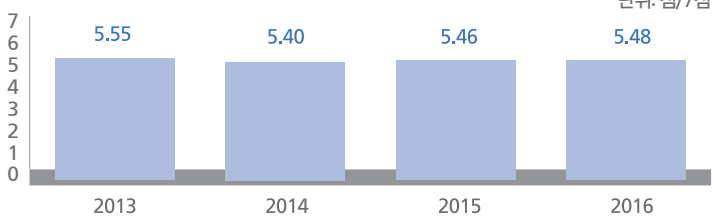
정의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의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측정

측정방법 만 19~69세 조사대상자 중 개인적 덕목의 중요도(8개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7점만점 평균값)로 산출

**2016년 5.48점,
전년대비
0.02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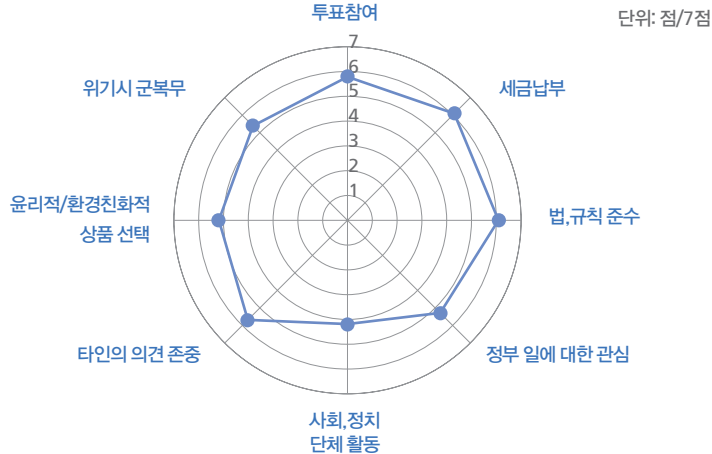
- 개인의 의무를 보여주는 8개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는 시민의식은 2016년 5.48점으로 나타났다.
- 2013년 5.55점에서 2014년 5.4점으로 감소한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세금 납부’와 ‘법, 규칙 준수’가 6.1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4.2점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2013~2016년 시민의식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세부항목별 시민의식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words

시민적 덕목 ①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②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③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④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⑤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⑦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⑧ 국가위기사 기꺼이 군복무 한다

significance

●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re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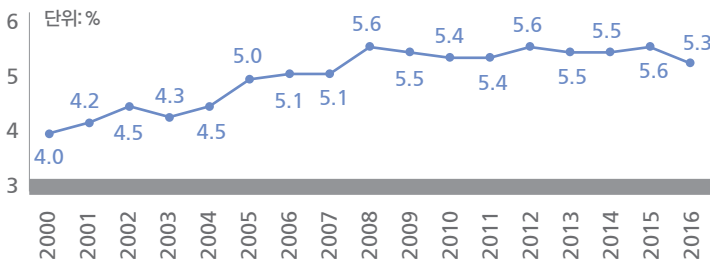
정의 공공 및 정부 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로 측정

측정방법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작성) 100점 척도를 10점 만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가 낮은 사회를 의미함

- 2016년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2015년보다 0.3점 감소하였다.
- 2000년 4.0점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5.6점 이후로 개선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6년 176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52위로 나타나 2015년 37위(168개국)보다 낮아졌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1위로 나타났다으며,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등이 8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4.7점), 중국(4.0점)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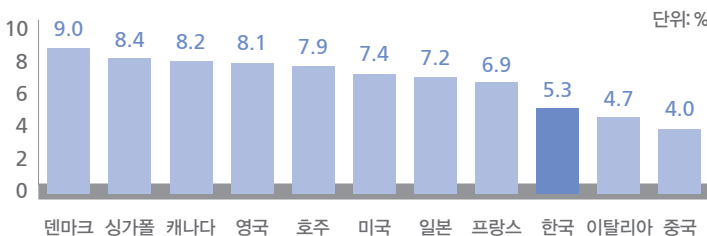
**2016년 5.3점,
전년대비
0.3점 감소**

2000~2016년 부패인식지수



•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2016년 주요국가별 부패인식지수



•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에게 각 국가별로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 주요 질문 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등임

●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하며,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음

Interpersonal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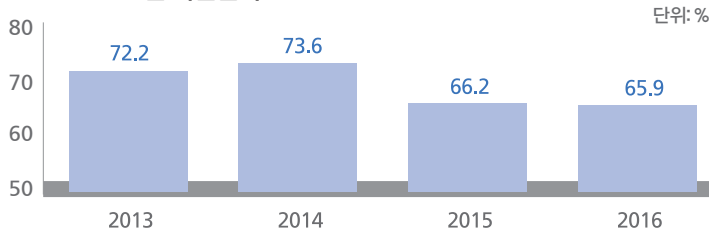
정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

측정방법 만 19~69세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2016년 65.9%,
전년대비
0.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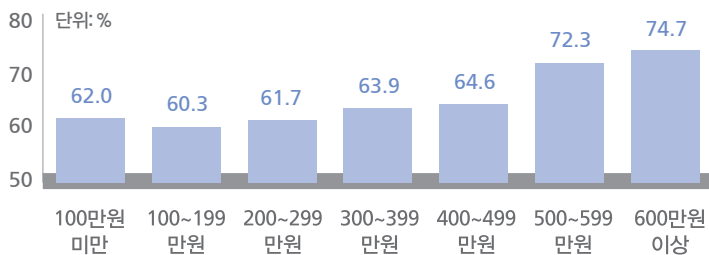
-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는 2016년 65.9%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준다.
- 대인신뢰는 2013년 72.2%에서 2015년 66.2%로 감소추세이다.
-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도 높아져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대인신뢰가 70% 이상인 반면, 200만원 이하에서는 61% 미만으로 낮아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여준다.

2013~2016년 대인신뢰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가구소득별 대인신뢰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significance

●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번성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음

기관신뢰



Trust on auth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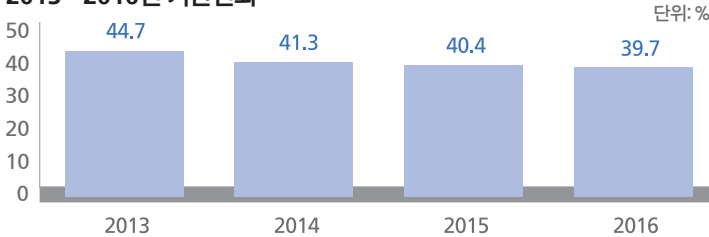
정의 주요 사회기관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

측정방법 만 19~69세 조사대상자 중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와 '약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비율을 합산

- 기관신뢰도는 2016년 39.7%로, 2013년 44.7%에서 감소하였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의료계'가 56.9%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교육계', '금융기관'도 5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2.6%로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검찰', '법원'도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대기업'은 34.3%로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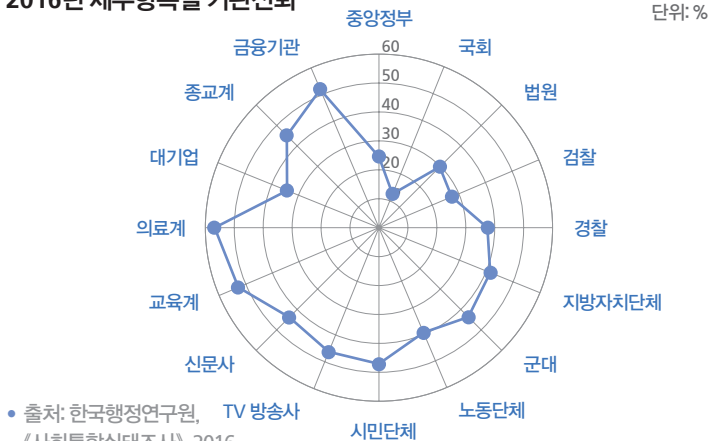
**2016년 39.7%,
전년대비
0.7%p 감소**

2013~2016년 기관신뢰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세부항목별 기관신뢰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TV 방송사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significance

10

안전

Safety



안전이란?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반으로 안전을 “각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위협에 빠트리는 모든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Stiglitz et al., 2009)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은 대부분 범죄와 사법 체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통, 식품 위생, 직장 업무 등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독립된 중분류 범주로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안전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6개, 악화된 지표는 3개로 개선 지표 비율이 66.7%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 산업재해율, 도로사망률 등의 사고 발생은 개선된 반면, 아동학대피해나 강력범죄, 화재발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들의 주관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는 최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강력범죄 발생률
-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산업재해율
- ☹️ 화재발생건수
- 😊 도로 사망률

주관적 지표

-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강력범죄 발생률



Violent crim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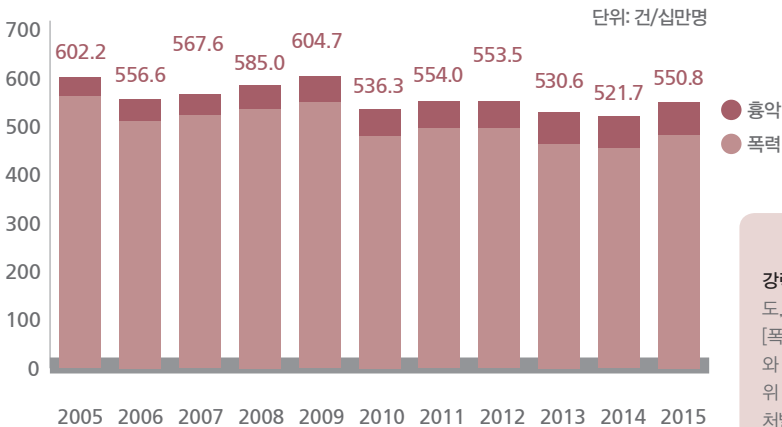
정의 범죄 중 피해나 두려움 정도가 가장 높은 강력범죄의 인구수 대비 발생건수

측정방법 강력범죄 발생률 = {강력범죄건수(흉악+폭력) ÷ 주민등록인구} × 100,000

-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죄 발생률은 2015년 인구 십만명당 550.8건으로 나타나 2014년 십만명당 521.7건에서 5.6% 증가하였다.
- 2005년 십만명당 602.2건에서 2006년 556.6건으로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5년 다시 증가하였다.
- 세부적으로 보면 폭력범죄가 십만명당 482.7건, 흉악범죄가 68.2건이고, 2005년 이후 폭력범죄는 감소하나 흉악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550.8건,
전년대비 5.6% 증가**

2005~2015년 강력범죄 발생률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강력범죄 흉악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강력범죄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전영역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이 좋은 삶이고 안전한 사회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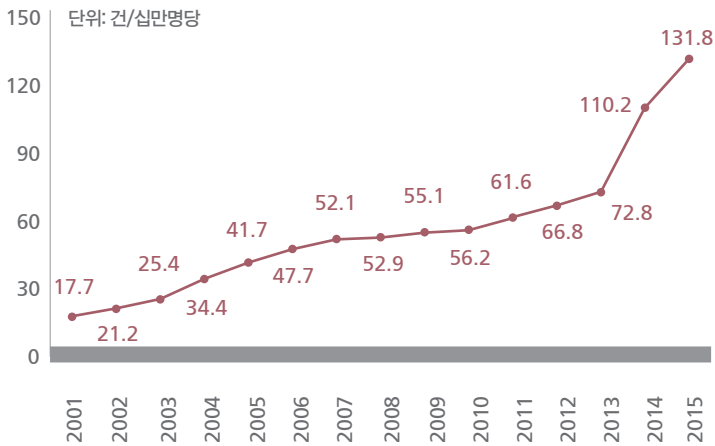
Child abuse rate

정의 아동인구 대비 신고 및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 건을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
측정방법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8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유의사항 신고 및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전체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5년 131.8건,
전년대비
19.6% 증가**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5년 아동 십만명당 131.8건으로 2014년 110.2건에 비해 19.6% 증가하였다.
- 2001년 아동 십만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수치는 신고·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01~2015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words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significance

•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Self-reporting crime rate

정의 1년간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해당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산출

-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 3.74%로 2012년에 비해 0.86%p 감소하였다.
- 피해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피해율이 0.4%, 재산범죄 피해율이 3.3%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울산, 대전, 인천이 5% 이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는 2.41%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경기도, 충청북도에서 피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2014년 3.74%,
2012년보다
0.86%p 감소**

2012~2014년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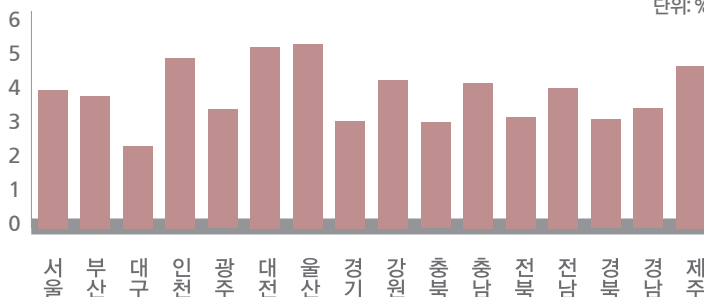
단위: 건, %

	재산범죄 피해건수	폭력범죄 피해건수	총피해건수	재산범죄 피해율	폭력범죄 피해율	총피해율
2012	509	92	601	3.8	0.8	4.6
2014	498	57	566	3.3	0.4	3.7

- 2014년 총피해건수는 피해유형 조사표에서 응답을 거절한 11건을 포함한 건수로, 이 경우 피해 유형을 알수 없음
-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간행물명: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 시도별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단위: %



범죄유형 성폭력 범죄, 강도 범죄, 폭력범죄, 소매치기, 일 반절도, 손괴, 사기, 주거침입 범죄 등

words

● 신고된 범죄발생건수가 아닌 개인이 경험한 범죄피 해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 로 사회안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significance

-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간행물명:전국범죄피해조사)》.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Society safety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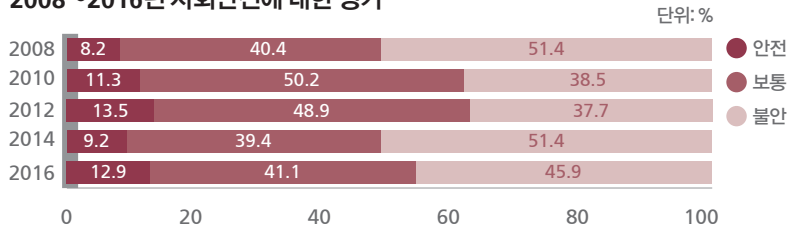
정의 우리 사회전반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2016년 12.9%,
2014년보다
3.7%p 증가**

- 2016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12.9%로, 2014년 9.2%보다 3.7%p 증가하였다. 2008년 8.2%에서 2012년 13.5%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2%로 감소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가 15.9%로 여자보다 5.3%p 높으며,
- 30대가 11.6%로 가장 낮고, 13~19세가 17.6%로 안전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8~2016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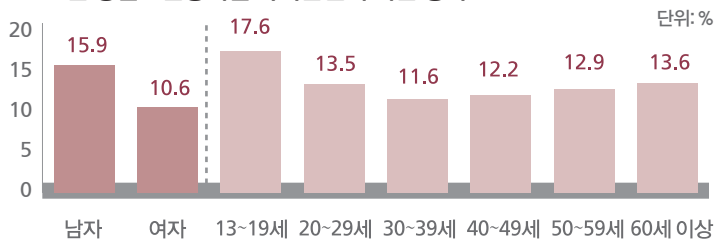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은 '안전'으로, '매우 불안'과 '비교적 불안'은 '불안'으로 합산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significance

●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2016년 성별 · 연령대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Street walking safety at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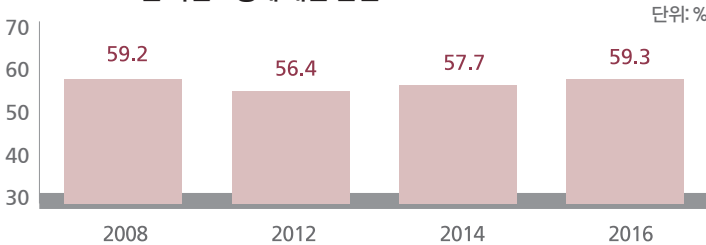
정의 집주변 야간 단독 보행시 두려운 곳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중 집주변 야간 보행시 '두려운 곳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야간보행시 두려운 곳이 없다는 2016년 59.3%로 2014년 57.7%에서 증가하였다.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2008년 59.2%에서 2012년 56.4%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성별로는 2016년 남자는 70.6%, 여자는 47.8%로 남자의 야간보행 안전도가 여자보다 22.8%p 높다
- 30대 이하는 50% 정도로 낮은 반면, 60세 이상은 74.6%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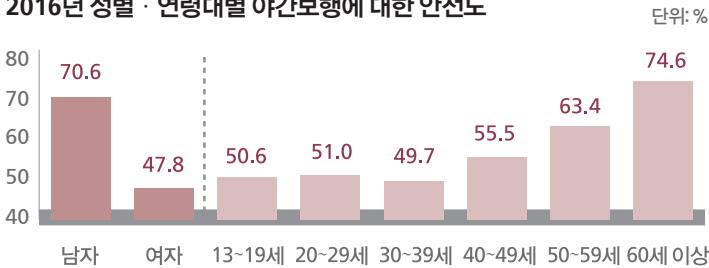
**2016년 59.3%,
2014년보다
1.6%p 증가**

2008~2016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대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만 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집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거주지역의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음

significance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Safety accident-induced child death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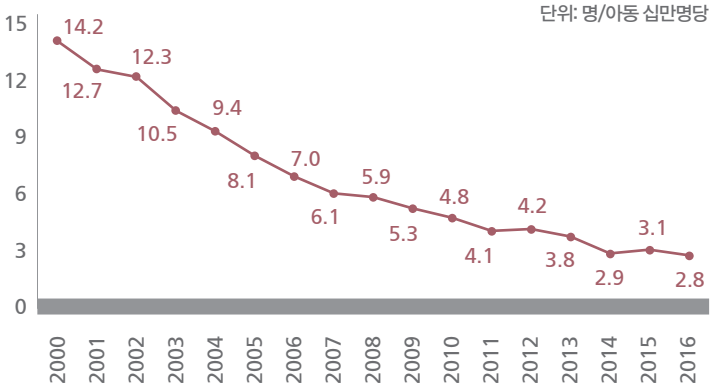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로 만 14세 이하의 십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로 측정

측정방법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안전사고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016년 2.8명,
전년대비
10.8% 감소**

- 만 14세 이하 아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6년 196명으로, 14세 이하 인구 십만명당 2.8명으로 나타났다.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아동 인구 십만명당)은 2000년 14.2명에서 2010년 4.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소폭으로 감소 추세이다.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로 보면 2000년 1,413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1/3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5년 2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2016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words

안전사고 범위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상, 중독, 기타로 인한 사망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significance

● 사회의 안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2000~2016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단위: 명

2000	2005	2010	2016
1,413	755	387	196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산업재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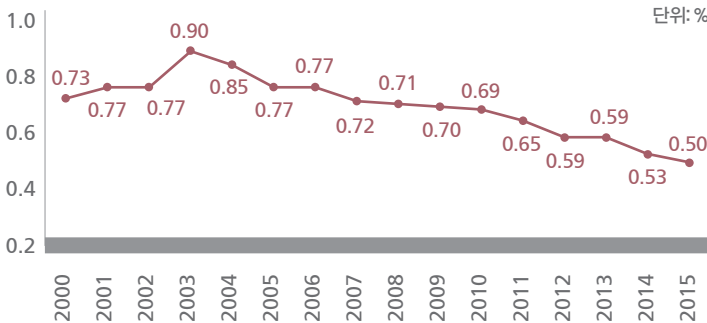
Worker accident rate

정의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의 비율로 측정
 측정방법 $\text{산업재해율} = (\text{산재로 인한 재해자수} \div \text{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 산업재해율은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한 재해자의 비율로 2015년 0.5%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율은 2000년 0.73%에서 2003년 0.9%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자수는 2000년 68,976명에서 2015년 90,1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수가 같은 기간 948만 여명에서 1,796만 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율은 감소추세이다.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2,528명에서 1,810명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0.5%,
전년대비
0.03%p 감소**

2000~2015년 산업재해율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단, 개인이 행하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

2000~2015년 산업재해자수 · 재해사망자수

단위: 명

	2000	2005	2010	2015
산업재해자수	68,976	85,411	98,645	90,129
재해사망자수	2,528	2,493	2,200	1,810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화재발생건수



Number of fire accident

정의 전체 화재발생건수

측정방법 연도별 화재발생건수로 산출

**2015년 44,435건,
전년대비
5.5% 증가**

- 2015년 화재발생건수는 44,435건으로 2014년 42,135건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 화재발생건수는 2000년 34,844건에서 2008년 49,631건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0년에서 2015년 화재발생건수는 9,591건 증가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531명에서 253명으로 50% 가량 감소하였다.
- 재산피해액은 같은 기간 1,519억에서 4,33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0~2015년 화재발생건수



•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significance

●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사고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등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임

2000~2015년 화재발생 사망·부상자수 및 재산피해액

단위: 명, 백만원

	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액
2000년	531	1,853	151,972
2015년	253	1,837	433,165

•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도로 사망률



Road casual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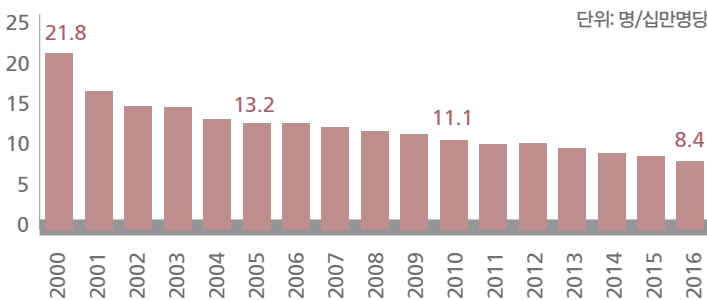
정의 인구 십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

측정방법 도로 사망률=(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 ÷ 추계인구) × 100,000

- 2016년 도로교통사고 인한 사망자수는 4,292명으로 인구 십만명당 8.4명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0,236명에서 2010년 5,505명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 십만명당 도로사망률은 2000년 21.8명에서 2010년 1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이후부터는 소폭으로 감소추세이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290,481건에서 2016년 220,917건으로, 부상자수도 같은 기간 426,984명에서 331,72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2016년 8.4명,
전년대비 7.5% 감소**

2000~2016년 도로 사망률



• 출처: 경찰청, 경찰교통사고통계

2000~2016년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부상자수

단위: 건, 명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0년	290,481	10,236	426,984
2016년	220,917	4,292	331,720

• 출처: 경찰청, 경찰교통사고통계

●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significance

11

환경

Environment



환경이란?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오염), 간접적(기후변화)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 자연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선택(예,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추세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8개 지표의 전기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2개로 개선지표의 비율이 62.5%로 나타났다(전기와 동일 지표 1개).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객관적 지표 중 미세먼지 농도를 제외하고는 다 개선되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아 주관적인 체감환경 만족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측정지표

객관적 지표

- ☹️ 미세먼지 농도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 하수도 보급률
-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주관적 지표

- 😬 기후변화 불안도
- ☹️ 체감환경 만족도

미세먼지 농도(PM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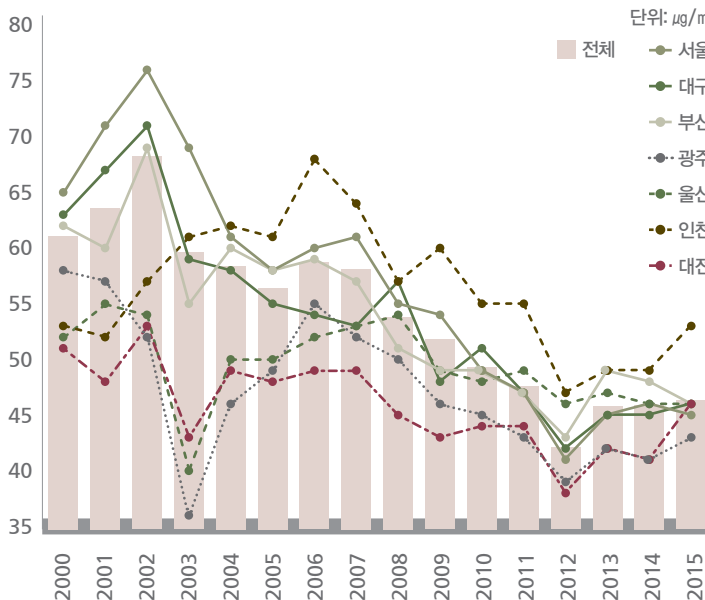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

정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PM10: Particle Matter 10 μ m, 직경 10 μ m 이하 먼지농도)를 인구가중평균하여 측정
측정방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연간 미세먼지 농도를 해당지역 인구를 가중평균하여 합산

-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값은 2015년 46.3 μ g/m³로 2014년 45.9 μ g/m³보다 0.8% 증가하였다.
- 2000년 61.1 μ g/m³에서 2002년 68.2 μ g/m³로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 42.1 μ g/m³로 낮아졌으나 다시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로 2015년 인천이 53 μ g/m³로 가장 높으며, 광주가 43 μ g/m³으로 가장 낮다. 인천의 경우 2000년에는 광주, 대전, 울산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한 후 감소폭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2015년 46.3 μ g/m³,
전년대비
0.8% 증가**

2000~2015년 인구가중평균 미세먼지 농도



●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대기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임

significance

1인당 도시공원 면적



Public park size per person in a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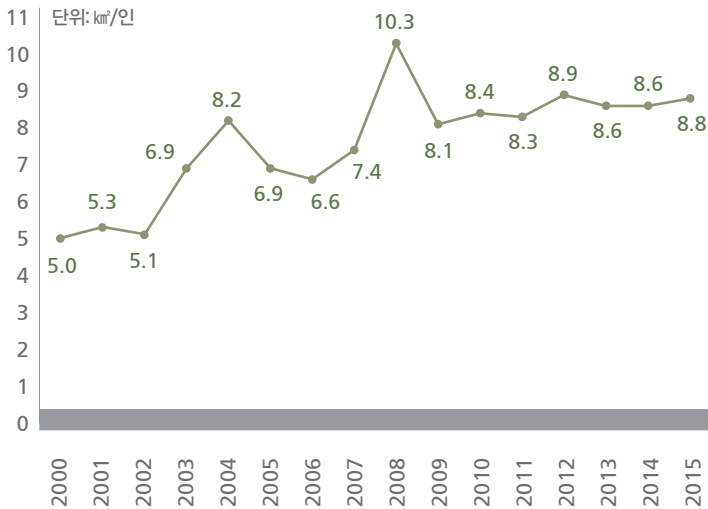
정의 도시지역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측정방법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지역 공원 면적 ÷ 도시지역의 총인구

**2015년 8.8km²,
전년대비
0.2km² 증가**

- 2015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8km²로 2014년 8.6km²에 비해 0.2km² 증가하였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0년 5.0km²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10.3km²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 8.1km²로 감소한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9km² 이내로 비슷한 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2000~2015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words

도시공원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significance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 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기후변화 불안도



Climate change re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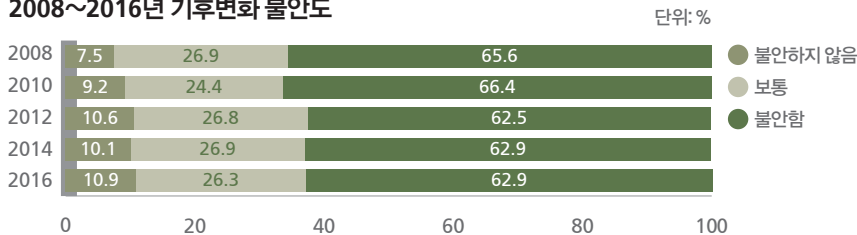
정의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2016년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 정도는 62.9%로 2014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08년 65.6%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 성별로는 남자(59.6%)보다 여자(65.9%)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 30~50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가 65% 이상으로 높고,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의 경우는 58~59%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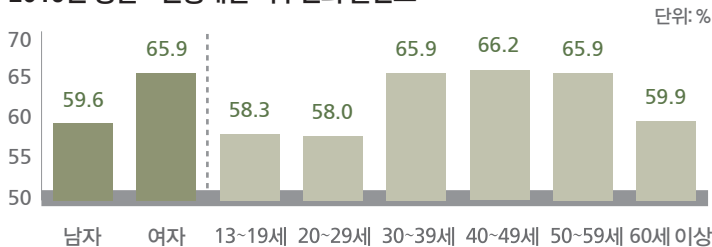
**2016년 62.9%,
2014년과 동일**

2008~2016년 기후변화 불안도



- ‘매우 불안하다’와 ‘약간 불안하다’는 ‘불안함’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다’와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불안하지 않음’으로 표시.
- 만15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성별 · 연령대별 기후변화 불안도



- 만13세 이상 인구 대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

significance

체감환경 만족도



Subjective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정도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체감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항목의 단순평균)

**2016년 32.5%,
2014년보다
1.4%p 감소**

- 2016년 살고 있는 지역의 체감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32.5%로 나타나 2014년(33.9%)보다 1.4%p 감소하였다.
- 세부 분야별로는 '녹지환경'이 41.2%로 가장 높으며, '소음·진동' (27.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강원, 경북, 제주, 전남, 세종이 45% 이상으로 높은 반면, 인천, 울산, 서울, 대구는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52.1%로 가장 높고, 인천은 1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0~2016년 체감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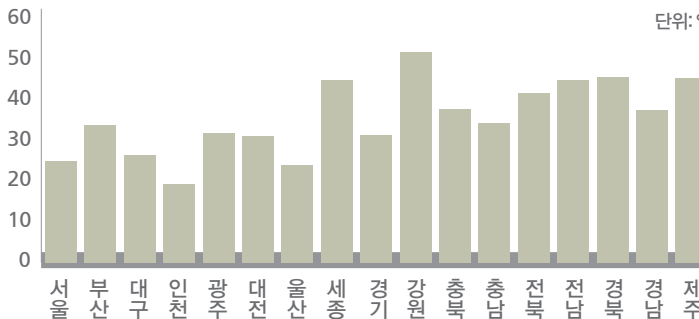
단위: %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평균
2010	36.0	33.9	30.4	27.3	42.0	33.9
2012	40.1	36.9	33.7	29.1	43.9	36.7
2014	36.0	34.8	30.5	26.8	41.2	33.9
2016	31.5	33.0	29.3	27.6	41.2	32.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 시도별 체감환경 만족도

단위: %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6.

significance

● 체감환경 만족도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5개 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점

에너지 빈곤층 비율



Energy poverty rate

정의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 경상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방법 에너지 빈곤층 비율=(경상소득에서 광열비(L6)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가구 ÷ 전체가구) × 100

- 가구 경상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비율은 2016년 6.6%로 2015년 6.7%에서 0.1%p 감소하였다.
- 에너지 빈곤층 비율은 2006년 6.9%에서 2009년 8.9%, 2012년 10.6%로 증가한 이후 2014년 9.2%, 2016년에는 6.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6.6%,
전년대비
0.1%p 감소**

2006~2016년 에너지 빈곤층 비율



- 1인 이상 전국가구(농가제외)
- 경상소득이 0인 가구 포함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광열비(L6)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차량용 연료는 제외)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경유 및 기타연료비가 해당됨

● 에너지는 필수재 성격으로 가격인상에 비례하여 소비저하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인상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됨

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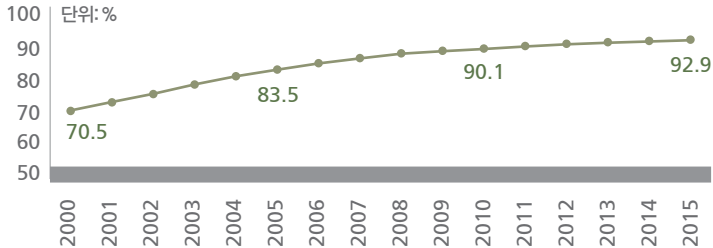
Water penetration rate

정의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에 거주하는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하수도 보급률 = (하수처리구역내 인구 ÷ 총인구) × 100

**2015년 92.9%,
전년대비
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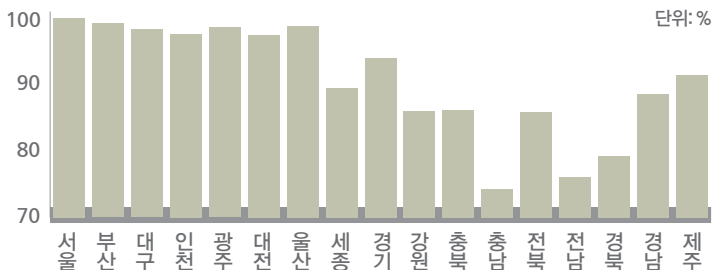
- 2015년 하수도 보급률은 92.9%로 2014년 보다 0.4%p 증가하였다.
- 2000년 70.5%에서 2005년 83.5%, 2010년 90.1%로 증가하여 200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증가폭은 감소하였지만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서울은 100.0%의 보급률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는 97%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은 80% 미만으로 보급률이 낮다.

2000~2015년 하수도 보급률



•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년도.

2015년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5.

significance

- 하수도 보급률은 공공하수도서비스 수혜인구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혜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폐기물 재활용 비율



Waste recycling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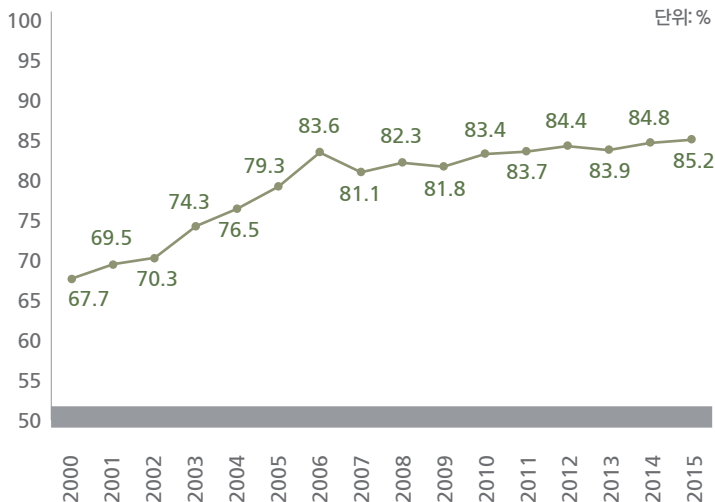
정의 폐기물의 재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된 비율로 측정

측정방법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일반폐기물 재활용량 ÷ 일반폐기물 발생량) × 100

- 2015년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85.2%로 2014년 84.8%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
- 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 22만 6천톤에서 2015년 40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일반 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재활용량의 비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00년 67.7%에서 2006년 83.6%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이다.

**2015년 85.2%,
전년대비
0.4%p 증가**

2000~2015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년도.

● 재활용률이 높아질수록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매립과 소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됨

significance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 to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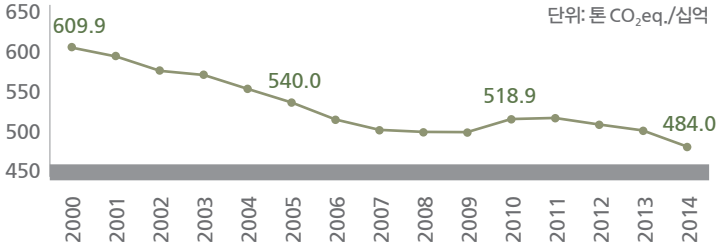
정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GDP 대비 온실가스의 총배출량

측정방법 (6개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 ×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 실질GDP

2014년 484톤, 전년대비 4.1% 감소

- 2014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십억원당 484톤으로 2013년 504.4톤보다 4.1% 감소하였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십억원당 609.9톤에서 2009년 502.2톤, 2014년 484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중국, 인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2014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words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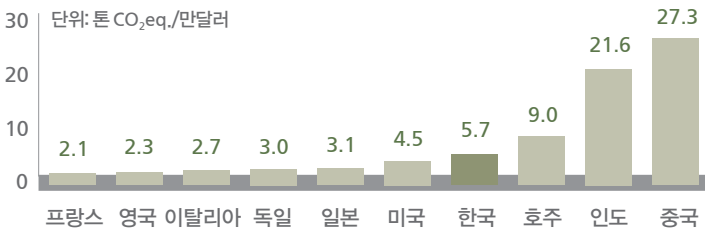
지구온난화지수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를 1로 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의 온실효과를 수치로 표시한 것

- GDP는 2010년 고정가격 기준 실질 GDP임
-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significance

●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의 생산 활동 및 소비활동(특히 에너지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2012년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 GDP는 2005년 미국달러 고정가격 기준 실질 GDP임
-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2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웰빙이란?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 주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중요한 보완적인 측정 장치이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뉜다. 인지적 요인은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 만족감을 평가한다. 정서적 요인은 일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한다.

최근 추세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의 전년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개선지표는 2개, 전년과 동일한 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정서 경험은 전년과 비교해서 약간 증가하였으며, 부정정서 경험은 전년과 동일하다.

측정지표

주관적 지표

- 😊 삶에 대한 만족도
- 😊 긍정정서
- 😞 부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정의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

측정방법 만19~69세 조사 대상자 중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으로 산출

- 2016년 삶에 대한 만족도는 5.9점으로 2015년 5.8점에 비해 0.1점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 5.7점에서 증가하였다.
- 남자(5.9점)보다 여자가 0.1점 더 높아 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높아 600만원 이상인 경우 6.2점인데 비해 100만원 이하의 경우 5.4점으로 나타났다.
-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4~16년 5.9점으로 OECD 평균(6.5점)보다 0.6점 낮으며, 이탈리아, 일본 등과 비슷하다. 반면, 호주, 캐나다는 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5.9점,
전년대비
0.1점 증가**

2013~2016년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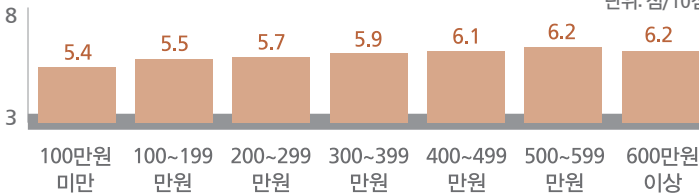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2013	2014	2015	2016
5.7	5.7	5.8	5.9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가구 소득별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10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4~2106년 주요 국가별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10점

한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OECD평균
5.9	5.9	5.9	6.9	6.4	6.7	7.3	6.5

- 출처: Gallup World Poll.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significance

Positive emotions

정의 어제 긍정적 정서(행복)를 경험한 정도

측정방법 만19~69세 조사 대상자 중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0~10점 척도로 응답하고 평균값으로 산출

**2016년 6.4점,
전년대비
0.1점 증가**

-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정서는 2016년 6.4점으로 2015년에 비해 0.1점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여자가 남자보다 0.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삶에 대한 만족도와 동일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더 높아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5점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500~599만원 대 집단에서 6.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만원 미만 집단은 5.7점으로 나타나 100~199만원 집단과도 0.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2016년 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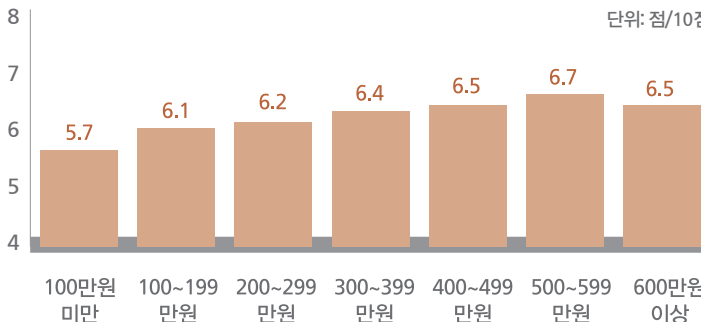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2013	2014	2015	2016
6.3	6.2	6.3	6.4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가구소득별 긍정정서

단위: 점/10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significance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경험임

부정정서



Negative emotions

정의 어제 부정적 정서(걱정, 우울)를 경험한 정도

측정방법 만19~69세 조사 대상자 중 어제 느낀 근심과 우울을 0~10점 척도로 응답하고 평균값으로 산출

- 어제 얼마나 ‘걱정’과 ‘우울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16년 3.7점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점, 4.1점으로 부정정서가 0.3점 정도 감소하였다.
-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3.7점,
전년과 동일**

2013~2016년 부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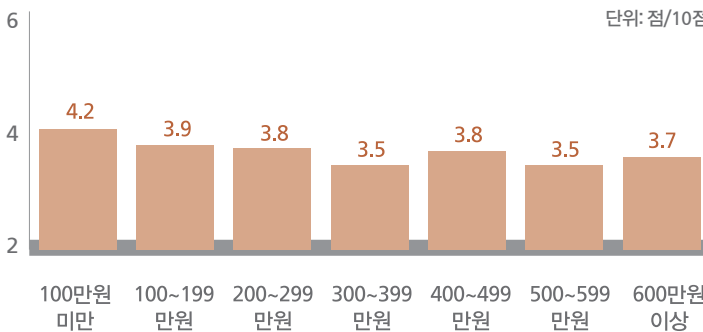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2013	2014	2015	2016
4.0	4.1	3.7	3.7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 가구소득별 부정정서

단위: 점/10점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부정정서(걱정과 우울)의 경험임

significance

국민 삶의 질 2017

발행인 배영수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행일 2017년 12월

디자인 동그란북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7층

전화, 042-366-7302

동그란북

072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 8층 802호

cumeumcum20@gmail.com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